Weekly 공감

2012.03.24 NO.152
gonggam.korea.kr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3.26~27

기획특집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 퍼져라! 나눔 바이러스 P19~35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확정

10년간 37개 사업에 1조 771억원 투자

지역발전계획은 「제주 민 · 군복합형 관광미항」과 연계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 육성, 주민소득 및 복지향상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역발전계획의 5대 전략과 주요사업

1. 크루즈를 통한 관광허브 조성
크루즈 터미널, 테마 쇼핑거리, 해양관광테마형 강정항 개발, 용천수 공원, 범섬 해양공원,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등

2. 농수산물 특화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첨단 화훼 · 과수단지, 특화작물 식물공장, 친환경 빌딩형 국가시범양식단지, 외해 가두리 양식단지 조성 등

3. 풍요롭고 살기좋은 정주환경 개선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보건지소 신축 및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교육환경개선, 마을 순환형 자전거 도로 등

4. 화합과 공존의 민 · 군 커뮤니티 조성
민 · 군 상생프로그램 운영, 체육관 · 수영장 · 공연장 등 민 · 군공동시설, 해군 박물관 및 함상홍보관 조성 등

5. 친환경 경관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구축
강정천 생태탐방로, 산림휴양림 조성, 풍력 · 태양열 · 지열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기부와 나눔은 정의다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지난해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하나 일어났다. 기부에 대한 관심과 기부액수가 놀라운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무료변호, 무료진료, 교육봉사 등의 재능나눔과 자원봉사도 많이 늘어났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봉사와 기부도 매우 커졌다.

경제사정이 여전히 어려운데도 나눔이 활성화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아진 점, 언론 매체들의 나눔캠페인,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기증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나눔의 DNA'가 발휘된 것이 아닌가 싶다.

1906년 나라가 큰 빚을 지자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켜 고종황제로부터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이에 동참했다. 외환위기 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금모으기 운동'을 벌여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영국의 일간지 〈런던 타임스〉는 "이런 국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일어나야 한다"고 격찬했다 한다.

한동안 너무 가난해서 이웃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개인들과 기업들이 비록 아직도 어렵지만 조금 여유가 생기자 서로 앞을 다투어 나눔에 동참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옛날에는 가난이나 재앙이 주로 자연현상 때문이었고 사람들은 이를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오늘날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주로 사회적인 원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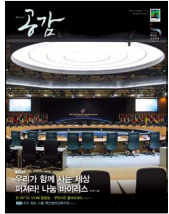
그러므로 가난이나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역시 사회의 도움으로 여유를 갖게 된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수 있다. 물론 국가는 세금을 거두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복지에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지출할 정도가 됐다. 앞으로 복지는 국가의 임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사회의 도움으로 여유를 갖게 된 사람들이 가난이나 질병 등 고통받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이 옳다. 어차피 공공복지로는 모든 복지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 다양한 수요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있게 마련이다. 여러 복지단체가 이웃의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 이를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인간적이다.

그러나 공공복지만으로 모든 복지 수요를 충당할 수는 없다. 설사 가능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수요의 성격과 정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지 사각지대가 있게 마련이다. 다양한 복지단체가 이웃의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 이를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인간적이다. 특히 다른 복지국가들에 비해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기부가 많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갈등지수가 네 번째로 높다. 그 때문에 매년 약 3백조원의 비용을 지출한다(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발표). 개인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는 이런 갈등을 크게 완화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부자들과 그 후손들에게도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멋지게 쓰는 보람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역사가 보여준 모범을 좇아 우리나라가 '기부선진국'이 되면 우리는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고 명예와 자긍심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Contents

152호 2012.03.24 통권 253호

표지 이야기 | 가슴 설레는 기다림 속에 엄숙함이 흐르는 서울 코엑스 정상회의장. 3월 26~27일 세계 53개 국가와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핵 테러로부터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바로 그곳이다. 2년 전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는 경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주었고,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기획특집

사랑도 재능도 나누면 세상은 더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객쩍은 상춘곡을 부르려 꺼낸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듬직하게 자라고 있는 나눔의 온기에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큰돈은 아니라도 애써 번 돈을 선뜻 기부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해 자신의 전문적인 재능을 내놓는 사람들 등 나눔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봄볕처럼 '나눔의 상춘곡'이 번지고 있습니다.

19

54

50

42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2.03.2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4월 12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한·미FTA 덕분에 든든해요

150호 '자동차 추가협상 이익의 균형 이상 없다' 기사를 읽고 한·미FTA 발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괜한 노파심에 혹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암흑기를 맞이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통해 한·미FTA가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또 한 번 도약을 하게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미FTA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 같아 국민으로서 무척 뿌듯하네요.

조성아 (43·주부·대구시 수성구 용학로)

달라진 교실 분위기에 학부모로서 안심

151호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중간점검에 대한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에 안심이 되더군요. 특히 각 학교에 전담 경찰이 배치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교육도 직접 진행한다고 하니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이제 학교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네요.

박병우 (53·회사원·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천안함 희생자들 오래 기억하기를

151호 천안함 피격 2주기 기사를 보면서 착잡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북한의 기습도발로 우리나라의 군 장병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 나라를 지켜주고자 했던 그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기에 이렇게 가야만 했던 것일까요. 추모식장에 진열된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차오르는 슬픔과 원통함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디 이 분들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박영재 (23·학생·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여수세계박람회도 많이 다뤄주세요

151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사 잘 봤습니다.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돼 자부심이 들더군요. 그리고 5월에 개최될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사도 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행사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가 지역성을 떠나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중대한 국가 행사임을 <위클리 공감>에서 다뤄주셨으면 좋겠네요.

김희용 (58·교사·전남 여수시 광무동)

독자 인터뷰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이 있는 기사들 좋아"

정상현 (30·고시준비생·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시사나 이슈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이 있는 기사들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들을 빠르고 쉽게, 정리된 상태에서 받아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현재 공무원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정상현씨는 학원을 오갈 때 <위클리 공감>을 읽는다고 한다. "정부부처에서 발행하는 책자는 빠놓지 않고 보려고 노력한다"는 그는 "고시 준비를 하느라 세상 돌아가는 것에 둔감해지는 기분인데 <위클리 공감>이 세상과의 소통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151호 기사 중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다면요.

"<나는 공무원이다>에 나온 노두환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노두환 대원의 이야기를 통해 공중진화대의 역할과 공중진화대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헬기가 한 번 뜨면 2시간 만에 연료비와 인건비 등으로 무려 8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도 알게 됐고,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을 내지 않는 게 최상의 방책'이라고 말한 노 대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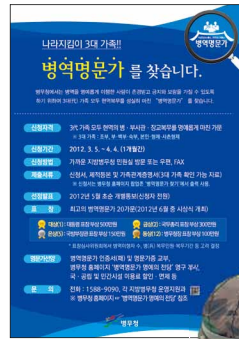
앞으로 <위클리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는지요.

"정책 이야기도 좋지만, 말랑말랑한 기사를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연예인 기사 말고 '공감'이라는 단어에 어울리게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언제나 좋으니 시리즈로 실어줬으면 더욱 좋겠고요. 요즘 저처럼 고민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사도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박근희 기자

알림

나라지킴이 3대 가족을 찾습니다

병무청에서 3대(代)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를 찾는다.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이면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우편, FAX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상에는 대통령 표창 및 상금 5백만원이 주어지는 등 총 20가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신청자격 | 3대 가족 모두 현역의 병·부사관·장교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
※3대 가족 : 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

신청기간 | 4월 4일까지

신청방법 |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 FAX

제출서류 | 신청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가능 자료)

선정발표 | 2012년 5월 초순 개별통보(신청자 전원)

시상내용 | 대상 1명 등 총 20가문(2012년 6월 중 시상식 개최)

문의 | **각 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1588-9090**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전문가 명예의 전당' 참조

한옥사진을 공모합니다

국토해양부와 (사)한옥문화원이 한옥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시대와 더불어 진화하며, 나와 내 가족이 더불어 살고 싶은 한옥의 모습을 담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제1회 공모전의 주제는 살림집이다. 고택도 좋고 현대에 지어진 한옥도 좋다. 옛집을 고쳐 지은 집도, 너와집도, 초가도, 한옥이 모여 있는 마을도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응모자는 한옥을 관찰하고 그 가치를 담아내며 사진이 전하는 한옥의 가치에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모기간 | 4월 16일까지

참가자격 | 한옥과 사진에 관심 있는 모든 이

공모주제 | 내가 살고 싶은 집, 한옥

시상내역 | 본상 및 특별상 2개 부문 시상. 1등 상금 5백만원

등록방법 | 참가등록은 공식홈페이지(hanok-photocompe.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참가 등록 절차에 따라 참가신청(1인당 3점 이내 응모 가능)

작품접수 | 우편접수,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문의 | **공모전 홈페이지 hanok-photocompe.or.kr**
(사)한옥문화원 ☎02-741-7441

바로잡습니다

151호 7쪽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 경과' 표에서 1991년 12월은 1993년 12월로, 2008년 8월은 2008년 9월로 바로잡습니다.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4월 11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1. 수레와 말을 타는 비용. 교통비.
3. 생선, 조개, 김, 미역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OOO의 날이 40여 년 만에 부활한다."
4. 자선이나 공공 사업을 돕기 위해 금전 등을 내놓는 일. "퍼져라 재능OO, 커져라 나눔문화".
5. 전쟁이나 분쟁 없이 평온한 상태. "핵무기와 핵테러 위협 속에서 더 OO롭고 안전한 세계를 위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다."
7. 국제회의나 정상회담의 경과에 관한 정부의 공식 성명서. communiqué.

세로

1. 몸이 매우 큰 사람.
2. 핵무기가 없어짐. 핵무기를 없게 함. "한반도 OOO를 위한 6자회담".
3. 물고기 잡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4. 반드시.
6.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8. 아프리카 동부, 적도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 수도는 나이로비.

<Weekly 공감> 150호(3월 14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유치원 3 도전 4 마이스터 6 관세 8 위시트리
세로 1 유전 2 원숭이 3 도서관 5 스스로 7 세종시

<Weekly 공감> 150호 '공감 퍼즐' 당첨자

문옥현 · 전북 군산시 사정동
박찬용 · 전북 남원시 월락동
이예림 · 인천시 중구 신흥동1가
이영신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한수진 ·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서울 코엑스 핵안보정상회의장 의장석에 앉아 마이크 상태, 카메라 위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세계의 눈이 이틀간 서울에 쏠리다

정상급 58명 역대 최다 참석… 최첨단 IT기술로 회의 빛내

핵테러로부터 보다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정상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26개국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리 전통문화와 정보통신 기술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란 주요 이슈뿐 아니라 각국의 주요 현안들까지 논의되는 뜨거운 정상회의장이 될 전망이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의 명단이 확정됐다. 3월 26~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세계 53개국 및 4개 국제기구(EU, UN, IAEA, Interpol)에서 총 58명의 대표가 참석한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3월 20일 주최국인 우리나라와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예정),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프랑스, 유엔, 유럽연합(EU) 등에서 45명의 정상(급)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국내 사정상 13개국은 정상을 대신해 부총리·외교장관 등이 대리참석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2박3일의 일정으로 방한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3회째 방한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단일 임기(4년) 내 최다 방한이다.

이명박 대통령, 26개국 정상과 개별 회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경우 취임 후 4회째 방한이다. 이전 방한 시 1박2일 체류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3박4일 일정이다. 또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경우 3월 말 의회 예산안 처리 일정과 겹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정상들 중에는 네덜란드, 스페인, 칠레, 태국 등 12개국 정상 및 여타 8개국 수석대표가 최초로 방한하며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등 5개국 정상은 현직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26개국 27명의 정상들(EU의 경우 정상회의 상임의장·집행위원장 2인 공동)과 연쇄적인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대부분의 참석 정상이 우리와의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해 옴에 따라 가용시간 및 일정, 양국간 현안·관심사 등을 최대한 감안해 양자회담 대상국을 선정했다.

양자회담 대상국들은 ▲한반도 주변 주요국(미국, 중국, 러시아) ▲국제사회 지도국가(EU,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남아공, 터키) ▲신흥협력 파트너(베트남, 태국, 가봉, UAE, 칠레, 카자흐스탄, 헝가리, 루마니아, 요르단,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중견국가(뉴질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등으로 다양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선정됐다.

준비기획단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하는 1만여 명의 대표단 및 기자단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 조성을 3월 24일 완공했다. 이어 3월 24, 25일 최종 리허설을 통해 정상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정상급 인사 및 대표단의 주요 활동 공간은 코엑스 3층에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기능적 측면 고려 ▲한국의 전통적인 여백의 미와 단아함을 살린 평화와 안정 이미지 구현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방식의 조성 등의 기본방향에 따라 조성했다.

'정상회의장'과 '정상 오·만찬장'은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기능적 측면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조성됐다. 회의장 중앙에 발언자를 중계하는 LED TV를 16대 설치했으며, 정상회의 실황을 18개 언어로 동시통역해 정상행사장 내 58개국 대표단 사무실로 생중계하게 된다. 또한 정상회의 첫번째 행사인 공식영접이 거행되는 영접장 전면은 우리 산하를 벽지로 표현했으며, 리셉션장 내부에는 한지 조명 및 벽지, 고가구와 조각보를 전시해 단아함과 여백의 미를 중시한 한국적 미를 구현했다.

한국 전통미·효율성 높여 행사장 조성

한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에게 한국전통공예기법인 나전칠기가 접목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증정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첨단과 전통의 만남'을 주제로 기획된 나전칠기 갤럭시탭은, 최첨단 정보통신(IT) 기기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태블릿형 PC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나전칠기 장인이 뒷면을 국내산 옻칠로 마감하고, 남해안 전복껍데기를 사용한 나전으로 모란문양과 각 정상의 이름을 새겨 넣어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다.

나전칠기 갤럭시탭의 기획 및 제작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삼성전자가 협력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장인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송방웅 나전장,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이형만 나전장, 중요무형문화재 제113호 정수화 칠장이 참여했다.

한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취재를 위해 39개국 3천8명의 일반 내외신(내신 2천2백82명, 외신 7백26명) 기자와 38개국의 수행기자 약 7백명이 참석하게 되어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한국에 쏠리게 됐다.

특히 작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의 경우 NHK, 아사히 신문, 후지 TV 등 2백명의 기자가 사전 등록을 마쳤다. 이는 참가국 중 최대 규모이다.

준비기획단은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에 불편함이 없도록 3월 25일 미디어센터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미디어센터는 1천3백 석의 메인프레스센터(MPC), 1백여 개의 방송부스가 들어선 국제방송센터(IBC), 휴게시설, 대한민국 홍보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외신 취재기자 4천여 명이 이용할 수 있다.

글·박경아 기자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홈페이지 www.seoulnss.go.kr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02-721-9520

"각국 공조해 원자력 안전 공감대 형성을"

김황식 총리,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 참석… 핵안보 심포지엄도 열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공식 부대행사로 마련된 2012 서울 핵안보심포지엄과 서울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이 개최됐다. 핵안보 심포지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5개국 2백70여 명의 핵안보 전문가가 참석해 핵테러 억제를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했다.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에는 전 세계 원자력 산업계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와 관련 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인 2012 서울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이 3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전 세계의 원자력 산업계 최고 경영자와 관련 국제기구 대표 2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해 이틀간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주관한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은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민간 분야에서 수행한 원자력 산업계의 활동들을 점검하고 산업계가 앞으로 실천해야 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 참석자들은 개막 첫날 '고농축우라늄 사용 저감', '원자력 민감정보 보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보와 안전의 연계' 등 3개 주제에 대해 공동 논의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전달됐다.

세계 원자력 산업계 CEO 등 2백여 명 참석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최된 원자력업계 회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 개막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존 리치 세계원자력협회(WNA) 사무총장, 로저 하우슬리 세계핵안보기구(WINS) 사무총장, 로랑 스트리커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의장, 마빈 퍼텔 미국 원자력협회(NEI) 회장, 다쿠야 핫토리 일본 원자력산업회의(JAIF)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루크 오르셀 프랑스 아레바 최고경영자(CEO), 쑨친 중국 국영핵공업집단공사 사장, 헬무트 엥겔브레히트 영국 유렌코 사장 등 세계 원자력 산업계의 수장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황식 총리는 축사를 통해 "원자력은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문제는 안전성이다"라며 "각국 정부가 공조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2012 서울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이 3월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핵안보 강화 위한 국제 협력방안 논의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 참가자들은 이틀째인 24일에는 원자력발전소, 주기기 제작공장, 연구소 등 국내 원자력 산업 시설을 돌아보고 불국사, 통도사 등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을 견학했다.

한편 3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는 세계 주요 핵안보 기관의 책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2012 서울 핵안보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 핵안보 관련 국제기구, 연구기관 및 원자력 규제기관에서 2백70여 명(해외 1백70명, 국내 1백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참가국가만 46개국, 2개 국제기구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핵안보심포지엄은 워싱턴에서 열린 제1회 핵안보정상회의 당시에도 개최됐다.

'핵안보 거버넌스의 혁신'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주관했으며, 핵을 이용한 테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 핵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진단하고 핵안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3월 23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2 서울 핵안보 심포지엄 참가자들. 앞줄 오른쪽이 마이클 웨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차관보, 그 옆이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번 심포지엄은 3월 26일부터 개최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를 전문가 그룹에서 미리 다루는 것으로, 핵안보정상회의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모두 4개 세션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의 제1세션에서는 '핵테러 위협과 핵안보 현황'을 주제로 해 2010년 워싱턴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사항과 세계 핵물질의 위험 정도와 현재 세계 핵안보의 현황을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주요 핵안보 이슈와 해결 방안'이란 주제 아래 고농축 우라늄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사용 후 핵연료 방호방안, 원자력발전소의 사이버 보안방안, 핵안보 문화 등을 논의했다.

제3세션에서는 '핵안보와 안전 연계방안'이 주제였다. 지난해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되돌아보고 특히 원자력안전과 핵안보의 연계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마지막으로 제4세션은 '2014년 이후 세계 핵안보 거버넌스'를 다루고 향후 세계가 핵안보 강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상회의 의제 전문가 그룹서 미리 다뤄

이들 4개 세션에는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 프랭크 히펠 프린스턴대 교수, 마이클 웨버 NRC 차관보, 카마 므라빗 IAEA 국장 등 20명이 각 세션 주제별 발표자를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한 엘리슨 교수는 미국 대통령 안보보좌관과 국방부차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하버드대의 JFK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세계적인 핵안보전문가로 베스트셀러인 〈핵테러리즘〉과 쿠바사태를 분석한 〈결정의 에센스(Essence of Decision)〉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제핵물질위원회(IPFM)의 라마무티 라자라만 공동의장과 프랭크 폰 히펠 공동의장, 앤소니 토머스 인터폴 화생방 국장, 안톤 클롭코프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센터 국장, 스티브 헨리 미 국방부 차관보, 카오루 나이토 일본 핵물질관리센터 소장, 케네스 룽고 세계안보협력재단 이사장, 이마 아르게요 세계안보비확산재단 이사장, 존 칼슨 호주 로위연구소 객원연구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용섭 국방대 부총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세관이 직접 시행

통관 후 5년에 걸쳐 실시… 허위 작성 땐 부당 관세혜택 환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원산지검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미FTA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따로 없다. 수출입업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허위 작성은 금물이다. 통관 당국이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증 결과 규정 위반이 발견됐을 경우 부당이득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와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다. 원산지검증에 대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3년의 어느 날, 무역업을 하는 A사장은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미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세관 당국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회사 사무실을 옮기면서 증빙서류를 분실한 것이다. 다른 서류는 다 있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 서류만 보이지 않았다.

A사장은 세관 당국에 "분실해 제출할 수는 없지만 허위로 작성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소용없었다. 원산지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뿐이다. 한·미FTA에 따르면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라 세관 당국은 부당이득 추징, 과태료, 벌금, 징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미FTA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두 나라의 물품만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나라의 물품이 한·미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한·미FTA는 해당 제품이 한국산 혹은 미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 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섬유·의류는 수출품도 우리 세관이 검증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따로 없다. 수출입업체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된다. 수출입 사후에 '원산지검증'을 실시해 허위 사실이 적발되면 관세혜택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추징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증명해야 한다. 양국 세관 당국은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미FTA로 관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 차량용 전기부품 중소기업의 생산라인.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원산지를 속여 관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막아 세수를 확보하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무역을 증진하는 효과도 있다. 소비자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도 원산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검증은 원칙적으로 수입국 세관이 직접 시행한다. 미국에 대한 수출품이라면 미국의 세관이 원산지검증을 하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미국산 제품은 우리 세관이 원산지를 검증한다. 다만 섬유류와 의류는 예외적으로 간접검증 방식을 취해 미국 수출품이라도 우리 세관이 원산지를 검증하게 된다.

원산지검증 방식은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수입자나 수출자,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원산지 관련 정보를 요청한다. 원산지검증은 통관 이후 5년에 걸쳐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입자와 생산자는 원산지 관련 서류를 최소 5년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2단계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3단계는 세관 당국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검증을 하게 된다. 사업장 방문은 사전통보 없이 진행된다.

원산지검증 결과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 또는 미국산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을지라도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추가로 정보를 제공해 판단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검증의 최종 결과는 해당 수입업체에 제공된다.

원산지 속이면 관세추징 외 과태료·벌금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발급주체가 적정해야 한다. 한·미FTA의 경우 협정국의 수출자, 수출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엔 생산자가 발급주체가 된다.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한·미FTA의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4년이다. 이외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협정세율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검증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각종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먼저 원산지제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기왕에 관세혜택으로 얻은 이득은 추징당하게 된다. 처음부터 관세혜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원산지검증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을 내야 할 때도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발급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G

글·변형주 기자

중소기업을 위한 원산지관리시스템 관세청·무역협회서 저렴하게 제공

한·미FTA를 활용하는 기업은 모두 원산지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 원재료조달과 재고관리, 원산지관리를 지원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관세청과 무역협회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❶ FTA Korea (KTNET, 지식경제부/무역협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2)대기업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는 기능을 인터넷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월 3만~9만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 www.utradehub.or.kr에 접속→ uTradeHub 회원 가입 신청(가입 신청시 FTA Korea 서비스 '사용' 선택) → 가입 승인 → FTA Korea 이용. 관련 정보를 장기간 보관할 수도 있다.

❷ FTA-PASS (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

시스템 구축 여력이 없는 영세업체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해 관세청이 개발, 무료 배포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이다. 원재료부터 중간재 및 완제품까지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는 물론 원산지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도 발급할 수 있다. 수출입통관 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게 원산지판정 이력관리와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대장관리도 할 수 있다.

이용방법 www.ftapass.or.kr에서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다.

원산지검증 주요 체크포인트

구분	체크포인트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① 발급주체의 적정성 여부 ② 유효기간 경과여부 : 한·미FTA는 4년 ③ 증명서 양식 :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여부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간의 직접거래가 원칙이나, 비당사국 중개인이 개입하여 송품장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조건하에 인정
협정세율 적용 대상품목 및 세율의 적정성	① 협정관세 대상품목 여부 또는 저세율 적용여부 ② 수입연도 또는 특정기간 해당세율 적용여부 ③ 세율적용 우선순위 적정여부 : 협정세율이 낮은 경우 우선 적용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입 여부	① 협정당사국으로 수입 후 원상태 재수출 여부 ② 협정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단순 기항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취득 여부
자료보관의무	① 수입자 : 원산지증명서, 수입거래계약서, 수입물품운송서류 ② 수출자 :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통보서,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수출품 출납서류, 수출품 구매계약서 ③ 생산자 : 원산지통보서, 수출물품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젊은 인력이 관심 갖게 연근해 어업 지원"

어업인들이 39년 만에 자신들의 이름을 단 기념일을 갖게 됐다. 지난 3월 20일 서규용(徐圭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어업인의 날' 지정과 관련 "어업인의 날 부활은 수산업의 도약을 꿈꾸는 어업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국내 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9년만에 부활한 어업인의 날을 맞아 "수산업의 도약을 위해 유통체계 혁신, 어업인 소득안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국회는 매년 4월 1일을 어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어업인의 날은 1969년 '어민의 날'이 지정됐으나 1973년 '권농의 날'로 통합됐고, 1996년과 1997년에는 각각 '농업인의 날'(11월 11일), '바다의 날'(5월 31일)로 운영돼 왔다.

서규용 장관은 "최근 한·미FTA 발효 등 계속되는 수산물 시장 개방 등에 따라 국내 수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어업인의 날 제정을 계기로 어업인들의 권익향상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어업인의 날을 기념해 일반 시민과 어업인이 함께 어업문화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풍어제(豊漁祭) 재현, 종묘 방류(放流) 행사, 어업인 사진전, 어업지도선 견학 등 다양한 행사를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어업인으로서의 자긍심도 고취할 계획이다.

39년 만에 다시 찾은 어업인의 날은 전국의 어업인들이 참여하는 큰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업인의 날이 갖는 의의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국토해양부 주관의 바다의 날(5월 31일)에 포함돼 '객식구'처럼 대접을 받았다면, 이제야 비로소 내 집을 마련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39년 만의 행사인 만큼 전국 단위의 어업인 주관 행사를 개최하는 등 어업인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념행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겁니다."

2012년 정부의 수산업 분야 중점과제는 무엇입니까.

"올해는 FTA를 넘어 선진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차세대 신(新) 수산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정책과제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FTA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유통체계 혁신, 어업인 소득안정 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둘째, 10대 양식 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해 2020년 수산물 수출 1백억 달러를 달성할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셋째, 산지(産地)의 물량수집, 상품개발, 마케팅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산물 거점 유통센터(FPC)를 새로 건립할 것입니다. 넷째, 수산물 비축물량을 소비량의 1퍼센트 수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한·미FTA가 지난 3월 15일 발효됐습니다. 어업부문에서도 많은 대비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만, 구체적인 보완대책은 무엇인지요.

"수입이 예상되는 명태, 민어 등 원양어업 품목의 관세 철폐 시기를 최대한 장기화해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 이후 철폐하기로 했어요. 어민들의 피해보전과 함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유통체계를 혁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식업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올해 7백68억원을 융자하는 등 2017년까지 총 3천8백40억원을 어민들에게 지원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산 분야 주요 추진성과나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2010년 10월 수협법 개정으로 전문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등 경영구조를 개편하고, 부실수협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경영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수산물 수출도 매년 기록을 갱신 중이고, 지난해 23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또 중국 수산물 소비확대 등에 대응해 지난해 12월 갯벌참굴, 해삼, 전복, 넙치, 참치, 해조류(김, 미역), 새우,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 등 10대 전략품목 육성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쳐 연근해 수산자원량이 늘어나고 있고, 수산자원 조성사업 전담기관인 '수산자원사업공단'도 지난해 1월 출범시켰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어선 해난 사고가 증가하는 등 조업환경에 애로가 많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관계 기관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어업지도선을 1천톤급 2척으로 대형화하고, 부족한 단속인력을 17명으로 늘릴 겁니다.

또한 불법조업 선박에 부과하는 벌금을 2억원까지 크게 올렸고,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어획물이나 어구(漁具)를 몰수하도록 법(EEZ 어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선 등 어업 인프라가 낙후되고, 고령 어업인들이 늘어나면서 어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선감척, 바다목장·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회복 노력으로 자원량이 증가추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어선 등 어업 인프라가 낙후하고, 고령 어업인 증가 등으로 어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연근해 수산자원량도 1980년까지 1천만톤이었다가 점점 줄어 2010년 8백35만톤으로 줄었습니다.

또 어선 노후화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어업규제로 인한 신규 인력 진입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례로 근해어선의 20퍼센트 이상이 선령 21년 이상 된 노후어선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을 방문한 서규용(가운데) 장관이 생선을 살펴보고 있다.

침체된 연근해 어업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까.

"연근해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우선 어선 현대화 등을 통해 주변국과의 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선원 복지를 확충해 젊은 인력이 연근해 어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선 톤수 제한을 완화하고, 연근해 업종 재편 등 어업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올해 7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어업 선진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규용 장관은 "수산인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3면을 둘러싼 바다의 주인공들"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우리 수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또 "올해는 수협 창립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앞으로 수협이 협동조합 정신과 가치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글·오동룡 기자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기항한 대형 크루즈선과 해군 함정의 모습을 그린 조감도.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 동시접안' 2차 시뮬레이션 결과

국무총리실, 제주도와 검증회의 갖는다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 동시접안 가능성에 대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를 개최한다. 2015년까지 계획대로 민군복합항이 완공되고 2012년부터 시작되는 10년 기간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이 완성되면 제주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국무총리실과 제주도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짓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 동시접안 가능성에 대한 2차(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를 개최한다고 3월 23일 발표했다.

양측은 "민군복합항 사업은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임에 인식을 다시 한 번 같이했다"고 밝히고, 민군복합항 사업과 관련해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제주도가 구성한 검증팀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제주도,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검증팀 구성

검증회의는 3월 5일 제주도지사, 도의회 의장, 여·야당 도당 위원장 등이 4인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국무총리실장이 3월 16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내용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하면 이를 적극 공개할 것이고, 전문가들 간에 진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검증회의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제주도 자체적으로 구성한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에 참여해 오고 있는 전문가와 국회 추천 몫으로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 등 5명 ▲도의원 2명 ▲제주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검증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도는 이번 시뮬레이션 검증 작업에 강정마을회 주민대표 1명의 참여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번 검증팀에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제주도, 도의회, 강정마을 등 제주도 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 도민의 총의를 모은 실질적이고 공정한 검증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군복합항 사업은 1993년부터 건설이 논의되어 오다 2007년 지역주민과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군기지로 추진되어 오던 중 2008년 9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 주민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민군복합항 내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자유 접안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가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 여부에 대한 기술검증을 실시, 지난 2월 14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통해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 확인을 위해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실시'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대(책임연구원 이윤석 교수)가 실시한 2차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보고서가 지난 2월 23일 국무총리실에 제출됐다.

3월 29일·30일, 4월 6일 세 차례 실시

한국해양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검증위가 제시한 조건(풍속 14m/s, 횡풍압면적 13,915㎡, 항로법선 교각 30˚, 예인선 배치)을 모두 반영해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현재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했다. 또 서쪽 돌제부두 조정 시에는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이 더욱 향상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국무총리실은 2차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해양대 이윤석 교수를 주축으로 하여 관련 연구원, 자문위원, 국방부 관계자 등이 제주도와 합의한 검증회의에서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민군복합항 공사 현장.

국무총리실과 제주도는 시뮬레이션 검증 회의를 ▲3월 29일 목요일 오후 3시 ▲3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4월 6일 오후 2시 등 총 3회 실시한다. 첫번째 회의 장소는 회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뮬레이션 작업이 실제 이뤄진 한국해양연구원으로 결정됐다. 이후에는 자체 회의를 통해 장소를 결정하기로 했다. 새로 열릴 검증회의에는 시뮬레이션 결과 최종 보고서, 퀸메리 2호의 조종 성능 및 운항 상황 동영상, 재현된 시뮬레이션 동영상 등 자료가 포함될 예정이다.

제주 발전 위한 10년 지역발전계획 시동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모두 1조7백71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 요구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한 이 지역발전계획을 위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국비 5천7백87억원을 지원한다.

2021년 완료되는 이 지역발전계획은 민군복합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민군복합항 건설과 연계한 새로운 지역발전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녹색의 도시, 풍요의 도시, 건강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은 ▲크루즈선을 통한 관광허브 조성 ▲농수산물 특화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개선 ▲화합과 공존의 민군 커뮤니티 조성 ▲친환경 경관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구축 등 5대 전략에 따라 37개 지역사업이 펼쳐진다. 이러한 사업들은 생산유발효과 약 1조5천5백4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천2백48억원, 1만8천42명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제주 발전을 위한 '효자항'입니다

글과 그림 · 소나무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미항입니다

기획특집

나누고 기부하니 더 커지는 대한민국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객쩍은 상춘곡을 부르려 꺼낸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듬직하게 자라고 있는 나눔의 온기에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큰돈은 아니라도 애써 번 돈을 선뜻 기부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해 자신의 전문적인 재능을 내놓는 사람들 등 나눔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봄볕처럼 '나눔의 상춘곡'이 번지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 이철원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민의 재능을 농어촌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민과 농어촌을 연결시켜주는 '스마일재능뱅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개그콘서트의 '감사합니다'팀이 스마일재능뱅크 홍보 행사에 참여했다.

'나눔의 온기' 사회 곳곳으로 퍼져간다

정부도 '재능기부 중개' 나서 농어촌 · 영세상공인 등 도와

나눔의 온기가 전 사회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낯익은 활동이고 개인의 기부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나눔의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단순한 구호활동이나 물품기부에서 벗어나 교육기부, 과학기부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도 나눔의 문화를 보다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2008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전북 무주 미항마을 주민들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체험마을로 지정됐지만 방문객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충남 태안에서 폐교를 활용한 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박준영씨가 컨설턴트로 나섰다. 마을을 둘러본 박씨는 미항마을의 숨어 있는 관광자원을 줄줄이 집어냈다. 고 황인성 총리의 유해가 묻힌 커다란 느티나무, 1백 년이 넘은 교회당, 마을 곳곳의 사과밭, 고풍스러운 담배창고 등 이야깃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했다.

박씨는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박형이 미항마을 사무장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 큰 도움이 됐으며 계획을 잘 추진해 많은 분이 찾아오는 체험마을로 가꾸어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봄이 기다려진다"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박씨와 미항마을의 인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8월 오픈한 '스마일재능뱅크'를 통해서였다. 스마일재능뱅크는 한마디로 도시민과 사람들의 재능이 필요한 농어촌을 연결해 주는 '중매쟁이'라고 할 수 있다. 농산물의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일에 종사하는 도시의 전문가들을 소개해 주는 식이다. 박씨는 체험마을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미항마을의 사연을 이곳에서 접하고 재능기부자로 나선 것이다.

농어촌에 활력 불어넣는 재능기부

스마일재능뱅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는 재능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농산업 측면의 재능기부다. 생산, 가공, 유통기술, 농기계, 설비, 마케팅, 홍보, 디자인, 재무, 회계 등이 그것이다. 지역개발 측면의 재능기부도 있다. 대표적인 분야로는 도시계획, 지역개발, 건축, 토목, 레저스포츠, 환경관리, 청정에너지, 조경, 관광, 교육, 복지, 축제 등이 있다.

기부와 자원봉사 정보제공 포털

나눔코리아 www.nanumkorea.go.kr

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스마일재능뱅크 www.smilebank.kr

방식은 간단하다. 재능을 기부하고 싶은 사람은 스마일재능뱅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재능기부 등록을 한다. 이들이 필요한 농어촌은 필요한 재능의 내용과 관련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재능기부자와 농어촌 주민들은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된다.

스마일재능뱅크는 초기 단계지만 적잖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재능기부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홈페이지를 개장한 지 채 넉 달이 되지 않아 1만명의 재능기부자가 등록됐다. 재능기부자는 3월 22일 현재 1만1천9백여 명으로 불어난 상태다. 농식품부는 재능나눔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종 학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나섰다. 방송기획·제작·연기·취재 등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활동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 방송직능단체들과 함께 전·현직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단을 구성해 영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나 독립PD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또 미디어특성화고와 대학교 관련 학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ABC, 미디어 소통투어, 나는 기자다, 세상을 연기하다 등 재능기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우선 올해 기자와 PD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미디어 생태계 전체 직군을 대상으로 프로보노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직능별 멘토링 사업을 주도할 '대표 멘토'를 선정해 방송통신 프로보노 지원단을 구성했다.

공무원들의 재능기부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직 재능나눔문화 확산계획'을 발표했다. 공직자들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해 나눔문화를 퍼뜨린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공무원예술대전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할 예정이다. 특수학교와 방과후학교 등에 미술·음악 지도, 예술학교 지망생 등에 무료 음악 레슨, 저소득층 자녀 공부방 동화구연·문예캠프 지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능기부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예술대전 수상자를 대상으로 '재능나눔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해 우수자에게는 연말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시설 등에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미술전시장과 음악공연장 임차경비를 지원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재능나눔활동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재능나눔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공무원연금공단–자원봉사센터 간의 협력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원봉사 나눔포털 '나눔코리아' 오픈

기부와 자원봉사 등 나눔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나눔포털인 '나눔코리아(www.nanumkorea.go.kr)'도 오픈했다. 보다 편리하게 기부와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해 나눔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나눔정보를 조회해 자신에게 맞는 나눔활동을 선택할 수 있고 기부영수증과 자원봉사실적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나눔단체의 활동과 정보가 공개돼 보다 투명한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희망나눔 정책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민관이 협력해 현장 중심의 나눔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캠페인과 기부환경 등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네트워크에는 기독교와 불교 등 종교계,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한국방송협회와 KBS 등 방송계, 나눔국민운동본부와 한국NPO공동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G

글 · 변형주 기자

차인표·신애라 부부는 2006년 한국컴패션과 후원자로 인연을 맺어 50명의 아이들과 3명의 대학생을 후원하고 있다.

"여러분이 준 사랑을 다시 나누니 행복해요"

재능기부 봉사에서 결연아동 후원까지… '사랑의 전도사'로 거듭난다

연예계 대표적 '기부천사' 션·정혜영 부부는 최근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27명에게 4백만원씩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지난해 둘째아이를 유산한 박경림·박정훈 부부는 올해 초 네팔 오지의 중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를 잃은 고통을 삭였다.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연예인들이 늘고 있다.

션·정혜영 부부
아내 생일선물로 대학생 27명에게 장학금 전달

"이번 장학금은 아내 정혜영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지난 2월 배우 정혜영씨는 남편 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생일선물을 받았다. 남편 션이 자신의 이름을 딴 '정혜영 장학금'을 조성해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수여한 것. 정씨는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정혜영 장학금'은 총 27명의 대학생들에게 1, 2학기로 나뉘어 연간 4백만원씩 지급된다. 이 장학금은 부부가 공동 집필한 포토 에세이 〈오늘 더 사랑해〉 인세 1억2천여만원을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하면서 조성된 것이라고 한다. 부부는 2007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며, 국내 저소득층 아이들 1백명을 선발해 매년 교육비로 1억원씩 4년째 후원해 오고 있다.

션·정혜영 부부는 신애라씨와 함께 한국컴패션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컴패션(Compassion)은 전 세계 26개국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1대1로 결연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전인적으로 후원하는 국제어린이양육기구다. 2003년 설립된 한국컴패션은 후원자들을 통해 8만2천명의 세계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다.

션·정혜영 부부는 현재 2백명의 아이들을 후원(1인당 월 4만5천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홍보대사까지 맡고 있다. 차인표·신애라 부부 역시 2006년 후원자로 인연을 맺은 이후 50명의 아이들과 3명의 대학생을 후원하고 있다.

션·정혜영 부부는 2005년 한국컴패션과 후원자로 인연을 맺은 이래 현재 2백명의 아이들에게 월 4만5천원씩 후원하고 있다.

차인표씨는 재능기부 자원봉사 모임인 컴패션밴드를 조직해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이 밴드에는 방송인 주영훈·이윤미 부부를 비롯해 가수 심태윤·황보·박지윤, 배우 예지원·엄지원·박시은 등 수많은 연예계 스타가 참여하고 있다.

박경림·박정훈 부부
"유산 후 나눔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

방송인 박경림·박정훈씨 부부는 지난 1월 5박6일 일정으로 네팔 바그룽(Baglung) 데비스탄(Devistan) 지역에 다녀왔다. 부부는 해발 2천5백미터에 위치한 안나푸르나 중등학교 아이들에게 준비해 간 학용품과 생필품을 나눠 주고, 새로 지은 교실 벽에 페인트칠을 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박경림씨는 임신 6개월 중이던 지난해 10월 갑작스런 유산으로 둘째를 잃었다. 박씨는 "유산 후 나눔에 대한 생각이 더 커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7년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가슴'보다 '머리'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그렇게 잃고 나니까, 모자를 떠서 정말로 아기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백 개도 천 개도 뜰 수 있겠다 싶더군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빈곤 아동들을 돕는 세계 최대 국제 아동구호 단체다. 박씨는 2006년부터 이 단체의 홍보대사로 활동했으며,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 신생아에게 보내주는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가수 장나라씨와 방송인 박수홍씨의 동참도 이끌어 내는 등 캠페인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연예계 1세대 나눔대사인 배우 김혜자씨는 22년째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활동 중이며, 전 세계 1백3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관록의 연예인들은 나눔도 관록
이순재·김혜자·박상원씨 등 10~20년 넘어

10년 넘게 꾸준히 나눔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도 다수다. 1세대 연예인 나눔대사인 김혜자씨는 벌써 22년째 월드비전(World Vision)의 친선대사로 봉사 중이다. 그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파키스탄, 케냐 등 지구촌의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 그들의 고통을 알리고 나눔의 메시지를 전해 왔다.

2004년에는 자신의 나눔 경험을 담은 에세이집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를 출간해 10년 동안 인세 전액을 기부해 오고 있으며, 전 세계 1백3명의 아동과 결연을 맺어 후원해 오고 있다.

모델 겸 연기자 변정수씨는 굿네이버스의 홍보대사로 10년째 활동 중이다. 그는 1998년 CF 출연료 전액을 기부하면서 굿네이버스와 인연을 맺었고, 2003년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년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5년에는 결혼 10주년을 기념해 부부가 방글라데시에서, 2006년에는 만삭의 몸으로 베트남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

2009년에는 남편과 두 딸 등 가족 전원이 인도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가족나눔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변씨는 현재 결연아동 30명을 후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1백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원로배우 이순재씨는 사단법인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후원회장으로 10년째 봉사하고 있다.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는 노인과 아동복지를 위한 국내외 지원사업과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복지단체다. 그에게 나눔활동에 참여하는 연예인이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으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나눔은 욕심을 비우고 사랑을 채우는 일인 만큼 상대가 아닌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요." G

글·서철인 기자

"내 인생의 최고봉은 나눔입니다"

히말라야 오지에 16개 학교 짓는 게 목표… 국내선 청소년 등산학교 운영

그는 '타고난 산사나이'다. 그는 22년에 걸쳐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를 정복했다. 그가 바로 '도전의 아이콘', '작은 탱크' 엄홍길(53) 휴먼재단 상임이사다. 아직도 '엄 대장'이란 호칭이 익숙한 그는 지금 인생의 최고봉을 오르고 있다. 그를 받아준 히말라야에 학교를 세우고 국내에선 등산학교를 통해 그의 재능과 이제껏 받아온 은혜를 나누고 있다.

영원한 '대장' 엄홍길 휴먼재단 상임이사는 히말라야가 베푼 은혜를 갚고자 네팔에 16개의 학교를 짓는 나눔봉사를 하고 있다.

"산이라도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네요." 타고난 산사나이라서 그런 걸까. 산이 아닌 도시 속 사무실에서 만난 엄홍길 휴먼재단 상임이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얼마 전 네팔을 다녀와서 처리할 일이 많이 쌓여 있어요. 이럴 때 산이라도 가면 좋은데,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네요."

엄홍길 이사는 2001년 시샤팡마(8천27미터) 등정에 성공하며 인류 역사상 8번째로 히말라야 공인 14좌를 등정했다. 그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04년과 2007년에는 8천미터급 비공인 위성봉인 얄룽캉(8천5백5미터)과 로체샤르(8천3백83미터)를 추가로 정복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공인 14좌+비공인 2좌)를 완등한 산악인이 되었다.

이렇듯 산악인의 '전설'이 된 그가 지금 산이 아닌 사무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나눔'이다.

"이제까지 산을 오르면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지 몰라요. 8천미터 이상의 히말라야 16좌를 완등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희생도 많았고요. 제가 그런 시련을 극복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히말라야가 저를 받아준 것이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갚는 중입니다."

히말라야 등반보다 힘든 네팔 오지에 학교 만들기

2008년 5월 휴먼재단을 설립한 엄 이사는 첫 나눔사업으로 지난 2010년 5월 네팔 에베레스트 인근의 팡보체라는 작은 마을에 학교를 지었다. 에베레스트는 엄 이사가 히말라야에서 가장 먼저 도전했던 산이다. 이곳에서 술딤 도르지라는 셰르파(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를 사고로 잃었다. 엄 이사로서는 히말라야에서 처음으로 동료를 잃는 순간이었다. 팡보체는 술딤 도르지의 고향이다.

해발 4천60미터에 위치한 팡보체는 그야말로 산간 오지 중의 오지. 이곳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산을 넘고 넘어 3시간이 훨씬 넘는 거리를 걸어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나마 허름한 학교는 그야말로 창고나 마찬가지였다. 엄 이사는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나눔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학교를 짓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곳에 학교를 짓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장 교통환경이 문제였다. 트럭이 오갈 수 없어 건설자재를 경비행기나 헬기로 운반했다. 수송비가 엄청났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학교를 어떻게 짓는가 하는 고민도 많았어요. 팡보체의 경우 난방시설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고민 끝에 모든 벽과 벽 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햇빛이 잘 들 수 있게 창문을 크게 만들었어요. 자연 채광 덕분에 난방을 하지 않아도 훈훈하더라고요. 교실 안에서 바깥 경관도 그대로 볼 수 있고요."

엄 이사는 "'학교'라는 이름을 단 건물만 덜렁 짓는 것이 다가 아니고 현지 사정에 맞게 모양과 특징을 달리한 건물을 짓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렇게 땀과 노력으로 지은 학교에 '제1호 휴먼학교'라는 이름을 붙였다. 팡보체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까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팡보체 휴먼학교는 모든 주민의 쉼터이자 희망의 터로 자리매김했다.

네 번째 학교 기공식… 자립할 터전도 제시

1호 휴먼학교 완공에 발맞춰 2011년 2월에는 두 번째 휴먼스쿨인 타르프 초등학교를 준공했고 올해 2월에는 세 번째로 룸비니에 학교를 세웠다. 지난 3월 2일에는 네 번째 학교인 비레탄티 학교 기공식을 가졌다.

엄 이사의 휴먼학교는 현지에서도 단연 관심의 대상이다. 현지 사정에 꼭 맞는 '맞춤식 건물'은 물론이고, 컴퓨터실, 도서실, 양호실, 놀이시설까지 완벽하게 마련된 덕분이다. 그래서 두 번째 휴먼스쿨인 타르프 초등학교를 둘러본 겅거랄 돌라 더루 네팔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네팔 초등학교를 짓는 데 모범으로 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엄 이사의 목표는 네팔에 16개의 휴먼학교를 짓는 것이다. 16개라는 숫자는 엄 이사의 히말라야 16좌 완등과 같다. 엄 이사는 "히말라야가 나에게 16봉을 내어줬으니 나도 히말라야에 16개의 학교를 짓는 게 목표"라며 "숫자에만 연연하지 않고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교, 쉼터를 짓겠다"고 다짐했다.

엄 이사는 학교를 짓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지인들이 자생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주었다. 엄 이사는 타르푸

엄홍길 휴먼재단은 히말라야 마을의 현지사정을 감안해 건물을 짓고 의료시설이나 컴퓨터실도 마련해 학생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도 환영받고 있다. 네팔 타르푸 휴먼스쿨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엄홍길 상임이사.

초등학교를 완공한 후 2백명 남짓한 학생들에게 염소를 한 마리씩 선물했다. 학생들이 염소를 기르면서 젖을 짜서 팔고 여기에서 생겨난 이익금은 다시 학교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다. 무조건 무언가를 받으려는 생각보다는 도움받은 것에 대한 보답을 스스로 자립해 삶의 터전을 가꾸어 가는 것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엄 이사의 나눔정신은 비단 네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엄 이사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재능기부와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등산학교를 열고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도 연다.

내달부터 주5일 수업제 맞춰 토요 등산학교

오는 4월부터는 강북구와 함께 청소년 등산교실을 연다. 내년 2월까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4~6월, 9~11월 둘째 주 토요일에 당일 프로그램으로 6차례 운영한다. 여름·겨울방학 기간에는 1박2일 캠프도 진행할 예정이다.

엄 이사는 "요즘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비행 사례에 대해 무척 걱정이 된다"면서 "산을 오르고 자연과 함께 호흡하면 인성이 바로 잡힌다. 자연 속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엄 이사는 앞으로 해외 등정 도중 세상을 떠난 대원의 유자녀 장학금 사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히말라야에서 받은 은혜를 '나눔봉사'로 사회에 고스란히 환원하는 엄 이사를 보며 이제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도전의 아이콘', '나눔의 아이콘'으로서 '대장'으로 불리길 기대한다. G

글·손수원 기자

호평중학교에서 3년째 방과후 농구교실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조문주 감독. 주말을 반납하고 '토요 스포츠데이'에도 농구를 가르치고 있다.

"국가대표 재능봉사 선생님"

농구 국가대표 출신 조문주 감독, 남양주 호평중서 방과후교실 봉사

금메달리스트, 국가대표 등 스포츠스타들이 학교로 발걸음하고 있다. 명예체육교사로 재능기부에 나선 것이다. 스포츠스타들의 재능기부는 미래 스포츠 꿈나무 육성뿐 아니라 교내 학교폭력방지와 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런 가운데 3년째 방과후교실에서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조문주 감독을 만났다.

"움직여야 볼이 오지! 그래, 잘한다. 주호야, 수비해야지. 규영인 뛰어!"

실제 경기를 방불케 하는 '감독님'의 목소리에 중학생 아이들이 농구코트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경기 내용도 수준급, 연습경기라 대충할 만도 한데 모두들 진지하다.

지난 3월 17일 토요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중학교 체육관의 풍경이다. 주 5일제 수업 후 처음 진행하는 이날 '토요스포츠데이(Sports Day)' 방과후 농구교실에는 약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조문주 감독의 지시에 따라 1~3학년이 두 팀으로 나뉘어 약 1시간동안 농구경기를 펼쳤다. 개중엔 여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아이들에게 스포츠는 좋은 여가활동"

경기 후 벌칙은 진 팀 중 1명이 이날 입었던 조끼를 몽땅 빨아오기. 빨래 당번은 가위바위보로 정했다. 몇 번의 가위바위보를 한 끝에 3학년 이은규 학생에게 빨래 당번이 돌아갔다. 학생들은 농구교실이 끝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호평중학교 방과후 농구교실은 학교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유명하다. 80~90년대 여자 농구스타이자 전 국가대표인 조문주(48) 감독이 농구교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식상 학교 측에서 약간의 수고비를 전달하고 있지만,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주 2회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비하면 재능기부나 다름없다. 조 감독은 지난 1월 서울 노원구 노원중학교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전국농구연합회 주최 농구교실에도 참여해 보름 동안 무료로 학생들에게 농구지도를 하며 재능기부에 앞장서왔다.

"2010년부터 3년째 매주 이틀 호평중학교 방과후 농구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잘하는 농구로 아이들을 좀 더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했어요. 당구장이나 노래방으로 겉도는 아이들에게 스포츠가 좋은 여가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당구에 재미를 붙이면 눈앞에 당구만 그려지듯이, 농구에 재미를 붙이면 농구를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농구교실 없었으면 지금도 집에서 자고 있겠죠"

학생들의 반응은 조 감독의 예상대로였다. 방과후 농구교실을 통해 농구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한 아이들은 담배 연기 자욱한 당구장이나 노래방을 찾는 대신 농구를 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으로 향했다. 농구교실 수업 종료 후에도 계속 체육관에 남아 농구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도 다수였다.

3년째 방과후 농구교실을 수강하고 있는 3학년 이상우 군은 "선생님이 고함을 칠 땐 무섭기도 하지만 슛 자세나, 드리블 폼 등을 자세히 가르쳐주셔서 좋다"면서 "이제는 농구가 무척 재미있어졌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것이 놀랍다는 눈치다. 조 감독은 "방송을 통해 내가 국가대표였다는 걸 안 학생들은 호기심을 느껴 더욱 열심히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번 학기부터 주말에도 방과후 농구교실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 반가워했다. 이날 첫 수업에 참여한 2학년 나유빈 학생은 "방과후 농구교실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쯤 자고 있을 것"이라면서 "농구 하러 학교에 간다고 하니 부모님도 좋아하셨다"고 말했다.

농구교실을 수강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실제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아이도 있었는데, 농구교실에 참여하고 나서 성격이 많이 밝아졌다"는 게 조 감독의 설명이다.

조 감독은 농구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재미를 붙여주기 위해 자신만의 경기 룰을 만들어 경기를 진행한다. 재미없어서 낙오하는 학생들은 드물다.

조 감독은 현재 방과후 농구교실 수업 후 학교 측의 배려로 호평중학교 체육관에서 '조문주 농구교실'도 열고 있다. "무엇보다 비어 있던 체육관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농구를 가르칠 수 있어서 기쁘다"는 그이다.

최근 스포츠스타들의 재능기부에 대해 조 감독은 "긍정적인 변화"라면서 "남자선수뿐 아니라 은퇴한 여자선수들도 실력을 썩히지말고 필드로 나와 재능기부에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스포츠스타 8백87명 명예체육교사 위촉

한편 지난 3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는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가 추천한 56개 종목의 스포츠스타 8백87명을 명예체육교사로 위촉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명예교사로 김미정(유도), 윤미진(양궁), 심권호(레슬링), 전병관(역도), 이용대(배드민턴), 김주성·전주원(농구), 차유람(당구), 임춘애(육상), 유남규·현정화·유승민(탁구) 등이 대거 위촉됐다. 명예교사가 된 선수들은 이달 중 거주지역의 체육재능뱅크에 등록돼 자신이 활동할 모교와 1인 1교 결연을 맺고 한 학기에 1회 이상 일일 체육수업, 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에 참여한다.

이 밖에 강연회, 농어촌의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능기부를 펼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말까지 총 1천명의 명예체육교사를 위촉할 예정이다. 스포츠스타들의 재능기부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G

글과 사진·박근희 기자

'금요일에 과학터치'의 도입강연은 주로 교사들이 많이 출연해서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는 덕분에 특히 초등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금요일엔 과학이 반가운 친구가 된다

한국연구재단의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 올 2월 1천회 돌파

기초과학연구 지원의 산실인 한국연구재단이 벌이는 다양한 '과학기술의 대중화'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07년 2월 시작한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이 1천회를 넘기는 등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다양한 과학재능기부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몇해 전 '이공계 위기론'이 확산되던 시절이 있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일반국민이 실감하기란 쉽지 않다. 반대로 일반국민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절감한다면 '이공계 위기' 운운하는 사태는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로 '과학기술의 대중화'가 거론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주는 것이 관건이다.

'과학기술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기관이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화제의 주인공이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9년 6월 26일에 기존의 3개 기관이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국가 대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다.

석학들, 복잡한 과학기술 쉽고 재미있게 설명

한국연구재단이 하는 대중화 프로젝트는 다양한데 그중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연구과제 책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과학지식 나눔의 장이다.

이 강연은 특히 일반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정보통신기술(IT) 등 최신 과학기술 성과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이 강연은 2007년 2월 23일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 후 부산·대전·광주·대구 등 5개 도시로 확산돼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월 10일로 총 1천회를 돌파하고 9만8천여명의 청중이 참석하는 등 지역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지식 나눔의 장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강연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금요일에 과학터치' 홈페이지(www.sciencetouch.net)를 통해 모든 강연에 대한 주문형비디오(VOD) 영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VOD 서비스는 연간 80만명이 넘는 국민이 온라인 강연을 청취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청·시청 ▲과학기술자협의회 ▲도서관 ▲언론사 ▲자원봉사자 등 5개 도시의 22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 행사는 연구책임자, 지역 초·중등 과학교사 4백여명이 강연에 참여하고, 1천8백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직접 운영하는 국가 대표 과학강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중들 호응도 높고 강사들도 출강 즐겨

특히 강사들의 열의가 높은 인기의 근본 원인이다. 지난 2월 24일 서울 정독도서관에서 류훈 서울대 의대 교수는 '뇌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6개월 전부터 강연내용을 생각하고 청중을 분석했다. 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온다는 것을 알았고, 두 부류의 청중이 관심 가질 만한 토픽으로 쉽게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그는 이날 "강연을 열심히 듣고 묻는 질문에 잘 대답하는 학생에게는 서울 혜화동에 있는 연구실 견학의 특혜를 주겠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찾아가는 과학실험실' 행사는 과학자와 대학 과학봉사 동아리가 연계해 초·중·고를 찾아가서 진행하는 과학재능기부 프로그램이다.

중복 출연한 강사가 많은 것도 눈길을 끈다. 그만큼 청중의 호응이 높고 강사들도 출강을 즐긴다는 뜻이다. 올해 강연까지 포함해 주요 강연 5회 출강자는 박일흥(이화여대) 황성우(고려대) 염한웅(포스텍) 이규철(서울대) 이원재(서울대) 이지오(한국과학기술원) 정종경(서울대) 함병승(인하대) 교수 등이다.

강연 주제도 다양하다. 우주의 끝, 원자, 반도체 나노소자, 원자력수소, 양자메모리, 형광분자, 생체유동현상, 그래핀 소자, 블랙홀 같은 어려운 테마가 있는가 하면 장내세균, 줄기세포, 인공근육, 초파리,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태양전지 같은 비교적 친근한 소재도 있다.

강사들은 어려운 주제도 가능하면 쉽게 풀어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지난 2월 10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5층 합동강의실에서 열린 1천회 기념 강연의 경우를 보자. 이 강연은 대전내동중학교 이영숙 교사의 '새처럼 수평잡기' 도입강연과 장윤석 포스텍 환경공학부 교수의 '환경호르몬의 역습' 본강연의 두 주제로 열렸다.

이영숙 교사는 새가 수평을 잡는 방법을 강의와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학생들은 4~5명씩 짝을 지어 스티로폼 공과 나무막대, 막대사탕을 이용해 실험을 하면서 즐거워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 밖에 다양한 과학재능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 '우수과학자와 함께하는 토요과학 강연회'는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에 대한 강연수요가 많은 서울 남부지역 시민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매년 24회 강연을 개최하고 있다. 과학기술 소외지역인 오지 주민들을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찾아가는 과학실험실' 등 국민과 소통 힘써

'국민과 함께 나누는 연구성과 강연'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과학자들이 군산 선유도 등 오지지역 주민을 직접 방문해 총 9회 강연을 개최했다. 강연 만족도 조사 결과 참석자의 72퍼센트가 만족한다고 답할 만큼 만족도가 높았다. 지난해 9월과 10월 두 달 동안엔 과학자와 대학 과학봉사 동아리를 연계해 실험 중심의 '찾아가는 과학실험실'을 운영했다. 참석자의 92퍼센트 이상이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단발성 행사로는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어린이공원 내 돔아트홀에서 열린 '행복한 과학자들의 희망터치 특별강연'이 눈길을 끈다. 이 행사에는 이공계 진학 예정 고등학생 2천2백여명이 참석해 재단 강연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승종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국민과 소통하고 우수 연구성과를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

글·박영철 기자

우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양적인 팽창을 넘어 질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회공헌 투자를 늘렸고 활동 방식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한화그룹이 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료로 설치해 준 후 기공행사를 갖고 있다.

기업의 변신… 사회공헌에 사활을 걸다

경제위기에도 지출 늘려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美·日의 2배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으로도 사회공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우리 기업의 사회공헌을 배우러 올 정도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회공헌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도 특별하다. 최근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기업들의 최대 화두는 위기 탈출이 됐다. 지출과 경비 절감은 기업들의 '공통분모'가 됐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사회공헌 지출은 전년에 비해 약 3억5천만 달러 줄었다. 일본의 경우 2009년 사회공헌 지출은 1천5백33억 엔으로 전년도의 1천8백18억 엔에 비해 크게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 지출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상향곡선을 그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0년 우리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은 2조8천7백35억원으로 전년보다 8.4퍼센트 증가했다.

2009년에는 전년 대비 23퍼센트나 불어났다.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지출 비중은 미국과 일본의 0.11퍼센트, 0.09퍼센트보다 2배 이상 많은 0.24퍼센트를 기록했다.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회공헌 지출은 세계 기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그에 걸맞은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세계 경영계의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속가능경영에 부합하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은 단순히 양적인 팽창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기업 경영과 밀접하게 연결된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질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룹사들이 각 계열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룹 내에 사회공헌 전담팀을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이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삼성그룹은 '드림클래스'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수업을 제공하고 있다(왼쪽 사진). 현대차그룹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인 '세이프 무브'를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교육 지원
삼성 '드림클래스'·현대차 '온드림스쿨' 대표적

최근 우리 기업들은 교육 부문에 대한 사회공헌을 늘려가고 있다. 장학금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세계적인 트렌드와도 일치하는 현상이다. 지난해 방한한 브라이언 갤러거 세계공동모금회 회장은 "미국 기업들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며 '사람과 교육'이 기업 사회공헌의 화두가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삼성그룹은 '교육'을 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으로 정하고 장학금 위주의 간접지원에서 벗어나 직접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34퍼센트였던 전체 사회복지사업 대비 교육복지사업의 비중을 올해 38퍼센트, 내년 4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교육복지사업으로는 올해 3월부터 시작한 '드림클래스'가 꼽힌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 강사를 선발해 1만5천명의 저소득층 중학생에게 방과후수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강사인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기부이기도 하다.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가난을 이기고 대학에 입학한 '롤 모델'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장학금 규모는 연간 3백억원 수준이다.

삼성그룹의 '드림클래스'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성적이 올랐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영어와 수학 점수가 각각 54점에서 61점, 50점에서 65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90퍼센트가 이 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그룹도 교육복지사업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교육사업과 장학사업을 아우르는 인재육성 종합브랜드인 '온드림스쿨(on Dream School)'을 출범하고 저소득층 미래인재 육성에 나섰다. 저소득층 인재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초중등학생 대상 농산어촌 교육지원 및 장학금 지원 ▲중고등학생 대항 미래인재 육성 및 장학금 지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연간 1만여 명씩 5년 동안 5만여 명의 초중등학생이 온드림스쿨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드림스쿨의 성공을 위해 재능기부도 활성화한다. 현대차그룹의 임직원과 대학생, 전문가들이 농산어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당장 오는 4월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재능기부 공모전을 실시한다. 여기서 선발된 팀에는 실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사회복지법인인 월드비전과 공동으로 청소년들의 적성 발견과 진로 결정을 돕는 '드림스쿨' 사업을 시작한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에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희망직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1차 사업규모는 2백명이다.

SK그룹은 자전거 재활용 사업을 하는 '두바퀴희망자전거' 등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다(왼쪽 사진). 두산그룹은 '드림스쿨'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적성발견과 진로결정을 돕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공익 달성

SK '행복나래'·현대중 '엔젤투자기금' 설립

SK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사회적인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SK그룹이 직접 설립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3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행복한 학교'는 방과후학교의 사회적기업 모델로 연간 9천2백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고 저소득층 직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행복도시락'은 2008년 이후 25만 개의 도시락을 결식아동들에게 제공했다. 자전거 재활용 사회적기업인 '두바퀴희망자전거'는 노숙자들을 채용해 재활을 돕고 있다. SK그룹의 사회복지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은 향후 3년 동안 30개의 사회적기업을 추가로 설립해 4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SK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웹사이트인 '세상'을 오픈했다. '세상'은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해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집단지성'을 만들어간다는 취지다. 2008년에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봉사집단인 'SK프로보노'도 설립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지난 3월 20일에는 세계 최대의 사회적기업인 '행복나래'를 설립했다. SK그룹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체(MRO)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대기업의 MRO가 골목상권을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행복나래는 중소 사회적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채용을 늘리고 수익의 3분의 2를 사회적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다. 행복나래의 연간 매출액은 1천2백억원 수준이다.

현대중공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아산나눔재단과 공동으로 1천억원 규모의 '정주영 엔젤투자기금'을 조성해 IT융복합, 스마트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펼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아산나눔재단은 또 민간 종합창업지원기관인 '정주영 창업캠퍼스'를 열어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 특색에 어울리는 사회공헌

복지시설 발전설비 제공 등 내부역량 활용

과거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은 천편일률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장학금, 구호물품 기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상이 달라졌다. 각 기업의 특색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이 크게 늘고 있다.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등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기업을 알리는 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사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한화그룹은 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해피선샤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차 사업연도인 지난해 20개 설비를 지원했다. 발전규모는 1백70킬로와트 규모이며 이를 통해 연간 3천만원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30개 기관에 발전설비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에너지기업인 GS칼텍스는 어린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환경재단과 함께 '그린에너지캠프'와 '그린에너지스쿨' 등을 개최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고 있다.

홈쇼핑업체인 GS샵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방송장비와 방송노하우를 활용한 교육기부를 하고 있다. 학생들을 GS샵의 스튜디오에 초대해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고가의 방송장비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GS샵은 현장 체험 교육 대상을 대학생 위주에서 고등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교통안전 캠페인인 '세이프 무브(Safe Move)'를 실시하고 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길'을 모토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인 '어린이교통안전캠페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작된 교육용 차량을 활용한 '이동안전교육', 교통사고 유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세잎클로버 찾기'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은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Make up your life)'라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 암환자들에게 메이크업과 피부관리, 헤어연출법 등을 전수하는 사업이다.

치료 과정에서 외모가 급격하게 변화해 우울증을 겪는 여성환자들이 적지 않다는 데 착안했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하게 해 투병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다. 2008년 시작한 이 캠페인에는 1천3백50명의 아모레 카운슬러와 교육강사, 5천5백명의 암환자가 참여했다.

주방가구업체인 한샘은 오래된 가구를 한샘의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희망의 러브하우스'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낙후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소외계층이 대상이다. 제품을 기부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찾아가 직접 설치도 해준다.

다문화가족 언어교육

LG '다문화학교'·포스코 '언어영재교실' 열어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도 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저소득 소외계층인 경우가 많아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LG그룹은 다문화가족과 저소득층을 위해 1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LG 사랑의 다문화학교'가 대표적이다. 중국어, 베트남어 등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과학에 재능이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선발해 한국외대와 카이스트 교수진에게 2년 동안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포스코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이다. 다문화가족 사회인식 개선, 포스코 미소금융재단 창업대출, 다문화가족 결혼식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언어 교육 지원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한국외대와 '이중 언어 역량강화를 위한 언어영재 교실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누리 콜센터도 설립했다. G

글·변형주 기자

LG그룹은 '사랑의 다문화학교'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SK컴즈, '온기훈훈 캠페인'

온라인 매개 수화 토크 콘서트 등 가져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온라인기업인 SK컴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해부터 '온기훈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을 매개로 기부문화를 확산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돕는다. 온기훈훈은 '온라인 기부로 훈훈한 세상'의 약자다. 지난해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료공연 등 6회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했다.

올해는 청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수화 토크 콘서트를 필두로 4회에 걸쳐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오는 4월 13일 국립국악원에서 2백50명의 청각장애 특수학교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특강과 토크쇼, 공연을 선보인다. 특강과 토크쇼 내용은 수화 통역이 제공된다. 네티즌의 참여를 통한 도서 기증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네티즌이 많이 추천하는 도서를 장애인 특수학교에 기증하는 행사다. SK컴즈가 온라인 홍보와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문화부는 캠페인 총괄기획과 관계기관 협조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나눔은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는 행위"

국가주도형 단순원조서 시민참여형 봉사활동으로 진화 추세

기부는 동서고금을 통해 어디에나 있었다. 근본은 같았다. 자신의 복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다. 모양새는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도 변화를 거쳐 왔다. 최근에는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재능기부'가 활성화하고 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기쁜, 수평적인 기부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더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음복(飮福)'이라는 말이 있다. 요즘은 제사를 마친 제꾼들이 제수(祭需)와 제주(祭酒)를 먹으며 조상들이 내리는 복을 나누는 것으로 의미가 굳어졌지만, 원래 음복은 잔치가 끝난 뒤 하늘에서 내린 복에 감사하며 잔치에 참여한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뜻했다.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Thanks Giving Day)이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가 이듬해 11월 추수를 마치고 3일간 축제를 연 데서 유래한다. 'Thanks Giving'이라는 이름처럼 하늘에서 내린 복에 감사하며(thanks) 경작법을 가르쳐 준 인디언들을 초대해 야생 칠면조(turkey)를 잡아 나눠 먹었다(giving). 즉, 복을 나눈 것이다. 이후 칠면조 요리는 추수감사절의 단골메뉴가 됐고 그래서 이날을 '터키 데이(Turkey day)'로 부르기도 한다.

자신의 복을 이웃과 나누는 모든 행위가 기부

세계 인구는 67억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0억명은 비만·과체중이고 또 다른 10억명은 굶주리고 있다. 200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문제, '누군가는 너무 배가 부르고 다른 누군가는 너무 배가 고픈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모였다.

나눔의 문화는 시대와 함께 변천해왔다. 80년대까지는 국가주도형 단순구호에서 그쳤지만 90년대 시민참여형으로 발전해 최근에는 재능나눔형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보낼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뜻있는 몇이 "세계를 감동시킬 아이디어를 내 보자"며 지혜를 모아 '테이블 포 투(Table for two)'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배부른 사람이 자신의 먹을 것에서 배고픈 사람을 위한 몫을 떼어내 모두가 행복한 식탁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들의 밥값에서 25센트씩을 걷었다.

우리 돈으로 약 3백원. 이 돈으로는 요즘 껌도 하나 못 산다. 그러나 이 작은 돈이면 아프리카 어린이 한 명이 학교에서 먹는 하루 급식 값을 해결할 수 있다. 아프리카 어린이만이 아니다. 그 돈으로 북한 어린이들의 배를 불릴 옥수수빵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다.

잔치 음식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던 우리 조상들의 잔칫상, 미국을 세운 건국의 조상들이 인디언들을 초대해 칠면조 구이를 나누던 식탁, 밴쿠버에 모인 지도자들이 25센트씩을 거두어 만든 '테이블 포 투'. 모두 자신들이 받은 복을 나누는 식탁이었다. '나눔'은 거창하고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신이 먹는 것을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나눔의 시작이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누는 식탁이 복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브라질의 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는 이런 말을 했다.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확장시키는 일이다. 타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만큼 자신의 존재는 확장된다." 나눔이란 결국 나의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만큼 내가 확장되는 것이다.

21세기형 재능기부는 재미·전문성 동시 추구

21세기의 나눔과 기부는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나눔과 기부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부는 많은 문제와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는 일방적인 '자선'으로서의 기부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진 재능을 함께 나누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기부가 필요하다.

1980년대까지는 '국가주도형' 구호단체 중심의 단순원조 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맞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시작으로 '시민참여형'으로 진화했다. 최근에는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봉사활동을 통해 생활지원, 정서적 감동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재미와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재능 나눔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로 보노', 즉 재능기부다. 프로 보노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의 약어로, 처음에는 미국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칭했다.

자신의 능력을 통해 봉사하는 재능기부가 확산되고 있다. 성악가들로 구성된 남성중창단 '보헤미안 싱어즈'가 중증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공연을 하고 있다.

21세기형 자원봉사인 프로 보노는 수평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봉사활동이며 모두가 나눔의 주체가 되는 행복한 나눔이다. 또한 누구나 주고받을 수 있는 즐거운 기부인 동시에 나눌수록 자신의 존재가 확장되는 기부다.

프로 보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내적 동기는 자기 재능을 통한 '봉사'와 그 과정의 자발적 자기 서비스화, 그리고 그 결과로 얻는 만족감이다. 이 행복한 매커니즘이 사람들을 재능 나눔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프로 보노의 전 과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신의 재능을 통한 봉사로 얻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모두가 기쁨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모인 재능들이 사회를 밝게 만들고 있다. 십시일반은 '열 숟가락, 한 밥그릇'이다. 열 사람이 자신의 밥그릇에서 한 숟갈씩만 덜어도 한 사람 몫의 밥그릇이 가득 찰 수 있다는 뜻이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쉽다. 하늘에서 받은 여러 복을 자신만을 위해, 자신이 먹을 식탁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아니 나눔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는 행위인 기부에 더욱 많은 사람의 동참을 기대한다.

글·이만식 (장로회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국세청 첫 여성국장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

"종이 없는 연말정산 시스템 큰 성과"

최근 세금 관련 일로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컴퓨터로 세금 업무를 본 사람들은 효율적인 서비스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싱가포르·홍콩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전자세정을 벤치마킹하러 한국을 찾는 관계자들도 급증 추세다. 임수경(51) 전산정보관리관이 취임한 이후 이런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임수경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업무추진력과 조직관리능력을 겸비해 연말정산간소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LG CNS 상무로 있던 임수경씨를 국세청 개청 이래 첫 여성국장으로 영입해 전산정보관리관(2급)에 임명하였다. 정부 부처가 외부에 개방하는 고위직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전산관리관 같은 핵심 보직에 민간인을 임명한 것은 국세청의 개혁의지가 그만큼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취임 후 일을 많이 했다. 일반인이 체감하는 성과로는 연말정산을 들 수 있다. 최근 연말정산이 대폭 간소화됐는데 여기에는 그의 공이 크다.

그는 "국세청에 세무정보가 다 있는데 굳이 직장인들이 종이 뽑아서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느냐"며 "종이 없는(Paperless)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강국 코리아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 이 같은 결정은 수많은 국민으로부터 우레와 같은 찬사를 받았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 등 국세행정 간소화

종이 없는 국세행정은 또 있다. 현재 구축 중인 '전자팩스 시스템'은 납세자·외부기관 등과 각종 서류를 주고받을 경우 별도의 출력 없이 PC에서 송·수신이 가능해진다.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최대 업적은 따로 있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추진 예정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이 그것이다. "현행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TIS)은 1997년에 개통된 것으로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2010년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국세청의 납세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국세행정 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국세청 직원 30명을 차출해 국세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를 추진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 국세청은 2010년 5월부터 '신고서 사전작성(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등 전자 세금신고를 할 때 국세청에 제출한 기존 자료를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 줘 납세자가 별도의 입력절차 없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무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My NTS(1인 1세무계정)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2010년 초에 오픈한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등 12개 시스템에 산재해 있는 51종의 세금정보를 납세자 유형별로 하나의 인터넷 화면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14개 상담전화 '126 세미래 콜센터'로 통합

그가 와서 가장 먼저 한 조치 중의 하나로 콜센터 통합을 들 수 있다. "국세청에 상담전화가 너무 많더군요. 무려 14종류였습니다. 이들 상담전화를 통합해 2009년 12월 단일 대표전화인 '126 세미래 콜센터'를 신설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최근 민원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해 본 사람은 처리시간이 빨라진 것을 알고 놀라곤 한다. '페이퍼리스 e-민원실' 덕분이다. 이 시스템은 세무서 방문 민원인의 민원신청부터 직원의 업무처리까지의 절차를 전자화한 것이다. 민원인은 컴퓨터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전자민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신청서와 스캐닝한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로 전자 이송할 수 있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2009년 12월에 5개 세무서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현재는 총 50곳에 시스템을 구축했고, 민원처리시간 및 대기인원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그는 보안에도 심혈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거뒀다. 직원이 보조기억장치(USB)에 국세정보를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과 '전자문서 보안시스템(DRM)'을 구축했다. 또 디도스(DDoS), 해킹, 바이러스 등을 실시간 감시해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국세청 사이버 안전센터'를 구축했다.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은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직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그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이냐고 묻자 망설임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대답했다. "홈택스 같은 시스템은 세정 선진국인 미국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세정은 아이디어가 좋고 효율성이 뛰어나 전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세정 개발운영 노하우 해외진출 추진

국세청은 전자세정의 해외진출을 추진 중이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대한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노하우를 개도국 국세청에 전수해 우리나라의 국격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기업의 전자세정 해외수출을 도울 생각입니다."

지난해에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 22개국에서 국세청 전산실을 방문해 선진화된 전자세정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그는 4월에는 중남미 국가들의 요청으로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등 3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그는 고려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산업공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부장, LG CNS 상무 등을 지냈다. 민간기업 재직 시절 인천 송도프로젝트, U-SEOUL포럼 등 다수의 공공프로젝트에서 IT컨설턴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는 "그동안 쌓은 IT 분야의 경험을 살려 국세청이 이 분야 세계 최고 행정기관이 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G

글·박영철 기자 / 사진·허재성 기자

> **전산정보관리관은?**
>
> 일선 세무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납세자의 편리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 정보기술(IT) 서비스를 개방·제공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정보책임자(CIO)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 주요 업무로는 신고·납세사항 등 모든 자료를 전산관리하는 국세통합시스템(TIS) 및 구축된 자료를 내부직원이 유용한 정보로 재창출해 사용토록 한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을 관리·운영한다. 또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신고·납부·민원 등 세무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Hometax)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

“줄어든 집세만큼 학업에 힘쓸 여유 생겨”

LH공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점검… 선정된 학생들 만족도 높아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실시했다.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출신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최근 매물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집구하기가 한층 수월해졌다.

“대학시절 내내 고시원 같은 좁은 원룸과 하숙집에서 살았어요. 원룸은 부엌 시설도 없이 잠만 자는 방이었는데도 월세가 36만원이나 됐죠. 새로 이사할 집은 평수도 넓고 부엌도 있어 기분이 좋아요. 게다가 매월 나가는 금액이 10만원 남짓으로 3분의1 이하로 줄어드니까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서울 종로2가에서 만난 김수진(27·한국외국어대 졸)씨는 새 집 입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다. ‘좀더 넓고, 싸고, 설비도 잘되어 있는 집'이라니, 요즘의 전·월세 대란에 그런 집을 어디서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서울을 한참 벗어나도 찾을 수 없던 ‘꿈의 집'을 만난 비결은 바로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있었다.

“부모님도 부담 덜어 기뻐하세요”

김씨는 지난 1월 모집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지난 2월 졸업했지만, 1월 공고 당시 졸업 예정자에게도 지원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고 혹시나 싶어 지원했는데 선정되었다.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걱정했는데 운 좋게 선정되어 너무 기뻤다”고 당시의 소감을 전한 김씨는 “동생도 같이 넣었는데, 동생은 떨어지고 저만 붙었다는 점은 좀 아쉽지만 부모님께서 한 명이라도 짐을 덜었다며 무척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물론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전셋집이 단숨에 김씨의 손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조건에 맞는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는 큰 과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집이 쉽게 구해지지 않아 애를 많이 먹었다”며, “전셋집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산꼭대기라도 찾아갔을 정도로 힘들게 돌아다녔다”라고 집 구하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른 일을 제치고 서울 시내 부동산들을 찾아 열심히 발품을 판 덕분에 김씨는 마침내 마포구 대흥동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구할 수 있었다고. 3월 26일에 입주 예정인 김씨는 “부엌까지 딸린 본격적인 '내집'은 처음이라 앞으로 집을 어떻게 꾸미고 살림을 꾸려나갈지 기대된다”며 밝게 웃었다.

“2년 거주 후 최대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저는 졸업한 터라 연장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드는 주거비를 줄일 수 있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 한결 마음이 가벼워요.”

그는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기까지 꼬박 2주가 걸렸다고 했다. “열 일 제쳐두고 부동산만 찾아다녔죠. 몸도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발품을 파는 것으로 전셋집을 얻을 수 있는 걸 생각하면 즐거운 고생이었어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거주하는 이영재(27·연세대 재학)씨 역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통해 집을 얻었다. 이씨는 당산동으로 이사하기 전에는 학교까지 40분 거리인 신림역 인근 원룸에서 자취를 했다.

“전용면적 5평 남짓한 좁은 방이라 책상도 들여놓을 수 없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해야만 했어요. 말 그대로 잠만 잘 수 있었죠. 북향이라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답답한 방이었지만, 한 달에 월세와 관리비로 44만원이나 들었어요.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선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죠.”

기준 완화로 한결 쉬워진 '내집 찾기'

이씨는 지금까지 “부모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 온 '개념 대학생'이다. 수업이 없는 날은 아르바이트에 매진해야 할 정도로 바빴다.

하지만 전세임대주택 입주로 '집세'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그는 “줄어든 집세만큼 아르바이트를 줄일 수 있으니 학업과 자기계발에 힘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며 “이제 내 방, 내 책상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 공부 시간도 늘어나고 학습 능률도 오를 것 같다”고 기뻐했다.

이윤진 기자 / 염동우 기자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 이영재씨(왼쪽)와 김수진씨. 이들은 좀 더 안정된 환경 속에서 취업을 꿈꾸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이 두 학생들의 경우처럼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꿈같은 제도'지만, 다른 한편으론 대상자들 사이에선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세계약에 성공한 이영재씨와 김수진씨 역시 “전세로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적었고, 간혹 있다 해도 부동산이나 집주인들에게 귀찮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기 일쑤였다”고 했다. 매물이 은행대출 같은 '부채가 공시지가의 1백50퍼센트 이내'이고,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라는 자격 요건에 맞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또 설령 그러한 매물이 있다고 해도 권리분석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전세임대주택을 찾는 대학생들은 부동산중개업소의 '기피대상'이었던 것이다.

“국가예산에 지나친 간편함 요구는 무리”

김씨는 “어렵게 찾은 집도 '임대신청, 권리분석, 승인'에 4~5일이 소요되다 보니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버려 놓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LH공사가 매물의 부채 규모를 '공시지가의 1백80퍼센트'로 기준을 완화하고, 전용면적을 50평방미터로 확장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놓았다.

또한 지역본부별 주택물색팀, 권리확보팀, 계약체결팀 3개의 TF팀을 조직·운영해 학생들이 필요한 물건을 즉시 알선해주거나 권리분석을 통해 신속하게 계약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재씨는 “많은 학생들이 지적한 문제들을 보면 미리 예측 가능한 것들도 있다”며, “LH나 언론 모두 제도의 좋은 점만 부각해 학생들에게 장밋빛 꿈만 부풀려놓은 게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 부동산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블로그 등을 통해 좀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다면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씨는 “앞으로 보완책이 나와야 하지만 문제보단 혜택이 단연 많은 제도”라고 강조한다.

“제출 서류가 복잡하고 막상 지원금을 받기가 어렵지만 전세목돈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으니 무조건 간편한 절차만을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 해를 거듭하면서 활성화되어 모든 대학생들이 김수진, 이영재씨처럼 행복한 주거 공간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G

글·이윤진 객원기자

20년째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이영직 소방장. 정년 퇴직을 3개월 앞두고 '이웃사랑'상인 서담상도 받았다.

20년째 이웃사랑 실천하는 강남소방서 이영직 소방장

출동·훈련이 일상… 휴무 땐 '가위손' 변신

9백여 차례 화재진압 임무는 물론 이발봉사 등으로 20년째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소방관이 있다. 소방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2001년 '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주인공 1백57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돼 청와대 초청을 받기도 했던 강남소방서 삼성119안전센터 이영직 소방장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2월 21일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이 주최한 '2012 서담(瑞曇)상 시상식 및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도 서담상을 수상했다.

"감사하죠.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큰 상까지 받으니…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 부끄럽기도 하고요."

서담상 수상소감을 묻자 이영직(59) 소방장은 짤막하게 대답한 후 훈련 준비를 했다. 이 소방장은 6월이면 정년퇴직을 한다. 그렇다고 '말년병장쯤 되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는 3교대로 갓 임용된 초보 소방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출근하면 차량정비와 소방장비 점검, 출동 신고가 적은 날에는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한다. 인터뷰 당일에도 훈련이 있었다.

이순을 앞둔 나이에 초임소방관 같은 하루 일과가 피곤할 법도 한데 그는 쉬는 날을 반납하고 이발봉사와 급식봉사 등을 다니고 있다. 이는 그가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자에게 주는 상인 '서담상'을 수상한 이유이기도 하다. 얼마 전 '비번'이었던 날에도 강남구 일원동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식당에 급식과 도시락 배달 봉사를 다녀왔다.

이 소방장의 봉사 영역은 경로당 청소, 급식봉사, 차량정비 등 다양하지만 그는 특히 '이발봉사하는 소방관'으로 유명하다.

"이발봉사는 20여 년 전 미용실을 운영하던 아내에게 이용기술을 배우면서부터였어요. 장애인 시설과 노인정에서 이발봉사를 하면서 봉사하는 즐거움을 느꼈지요. 그러다 봉사를 직업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늦은 나이에 소방관 시험에 응시했어요."

그는 1992년 마흔이 되던 해에 늦깎이 소방관이 됐다. 봉사와 희생 없이는 수행하기 힘든 소방공무원. 그에게 소방관은 어려운 이웃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직업이었다.

"초임 소방관 시절 세곡동으로 급수 지원을 나갔다가 그곳에서 장애인들을 만난 후 다시 미용가위를 잡게 됐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살던 장애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저도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었지요."

봉사가 좋아 마흔에 소방공무원 입문

이 소방장은 이후 휴무일에는 세곡동 참빛교회를 찾아가 이발봉사와 목욕봉사를 했다. 봉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그는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동료 소방관들에게 2천원씩 받고 이발을 해주기 시작했다. 동료 소방관들도 좋은 뜻에 동참하기 위해 그에게 기꺼이 '머리를 맡겼다'. 그는 이를 통해 매달 30만원 정도를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또 그는 자택 근처를 돌며 폐품까지 수집해 팔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을 위해 기부했다.

이 소방장의 이웃사랑 실천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봉사모임인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연계해 지적장애인 30명과 금강산 등반도 다녀왔다. 소방서에서의 차량반장 특기를 살려 어르신들의 차량정비를 돕는가 하면 동네 경로잔치 사회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강남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외에도 자택 부근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급식봉사와 이발봉사를 펼치고 있다. 관내 독거노인 다섯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봉사활동은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넓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도와준다는 의미보다는 이웃들의 말벗이 되고 이웃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죠." 이 소방장의 말이다.

봉사 하는 소방관으로 유명한 이 소방장. 쉬는 날이면 그는 이발사 가운을 입고 이발봉사에 나선다.

쉬는 날도 반납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소방장도 현재 그리 건강한 몸 상태는 아니다. 2004년 당시 눈길에 버스가 미끄러져 덮치는 큰 사고를 당했던 그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나 2년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후 지금까지도 그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 소방장의 모습은 많은 동료와 선후배들을 봉사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올 6월이 정년… "봉사엔 퇴직이 없죠"

최응섭 강남소방서장을 비롯해 동료 소방관, 의용소방대원들이 함께 봉사반을 꾸려 꾸준히 봉사를 펼치고 있다. 이발봉사를 지속하기 위해 그는 후배에게 미용기술을 전수해 주기도 했다.

1992년 11월 소방관으로 임용돼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현장에서 구조활동 등을 펼쳤던 그는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퇴직을 앞둔 심정을 묻자 그는 "2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최소 6천 회는 출동한 것 같다"면서 "출동 나갈 때마다 '큰불이나 큰 사고가 아니어야 할 텐데' 늘 가슴 졸이며 살아야 했지만 소방관으로서 20년 동안 몸담을 수 있었던 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봉사에는 퇴직이 없다"면서 "퇴직 후에도 꾸준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글·박근희 기자

황사?… 반사!

손 자주 씻고 마스크 착용 등 '5대 생활수칙' 지키세요

봄이 되면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바로 황사다.
온 세상을 누렇게 뒤덮어 버리는 모래바람은 숨을 턱턱 막히게 한다.
무엇보다 황사는 호흡기 및 안과 질환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수다.

봄철 황사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인만큼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외출 시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과 얼굴을 자주 씻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올봄 황사는 조금 늦게 시작되고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5.1일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서북부 지역과 몽골 남부 지역 등에서 한반도로 불어 오는 황사는 사람은 물론, 농축산업, 제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피해를 준다.

황사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황사로 서울 지역 미세먼지 최고 농도가 평상시보다 29배 정도 증가했다. 황사 때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의 농도는 평상시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황사의 토양 성분으로 인해 철과 망간 등 중금속의 농도가 평상시보다 크게 높아진다.

어차피 황사를 원천봉쇄할 방법은 없으니 노출을 최소화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어린이는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특수제작된 '황사방지용' 마스크 준비를

황사로 인해 발병하는 질환에는 자극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피부 트러블 등이 있다. 황사가 폐로 들어가면 기도 점막을 자극해 호흡이 곤란해지고 목이 아프다. 특히 천식과 폐결핵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천식환자는 무조건 황사를 피해야 한다. 외출을 삼가며 창문을 꼭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 또 가습기를 이용해 실내습도를 높여 줘야 한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일반 마스크 대신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자. 미세입자를 걸러낼 수 있는 특수 필름과 구조로 제작된 황사방지용 마스크에는 제품포장에 '황사방지용'과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다.

식약청에서 허가 심사를 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10여 종으로 약국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다. 이 마스크는 얼굴에 잘 밀착되는 컵 형이나 접이 형의 특수한 구조로 제작돼 있어 얼굴과 밀착되는 부위에 외부 공기가 새어 들어가지 않는다.

항상 대기 중에 떠다니는 황사먼지는 음식이나 과일·채소 등에도 쌓인다. 따라서 공기 중에 노출되었던 과일이나 채소는 깨끗이 씻어 먹고 남은 음식물은 밀폐용기 등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물을 자주 마시면 몸 안에 들어온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루 8잔(1~1.5리터) 정도면 충분하다. 다만 황사철엔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는 마시지 말 것을 권한다.

황사는 농축산업 부문에도 피해를 준다. 황사가 일어나면 투광률이 저하돼 식물이 자라는 데 나쁜 영향을 준다.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인공 황사를 이용한 실험결과 비닐하우스 내 투광률이 약 18퍼센트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황사가 발생하면 가축의 호흡기 질환이 1.21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류일선 연구관은 "개방식 축사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 젖소 등은 황사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며 "황사예보가 있을 때는 구연산 용액 등을 축사 안에 미리 살포하고 황사가 끝난 후에도 반복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사는 호흡기가 약한 노인과 어린이에게 특히 나쁜 영향을 주어 외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 대형마트에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씌워주고 있다.

산업 부문 피해도 적지 않다. 전자제품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불량률이 늘어나고 조선업계에선 도장작업이 일시 중단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는다. 야외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매출 감소도 불가피해진다. 더불어 대중교통수단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극단적인 경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황사는 불청객이기만 하다.

기상청, 황사 예·특보… 심할 땐 긴급방송

환경부, 교과부, 복지부, 기상청 등 14개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5대 생활수칙'을 제정했다. 창문 닫기, 황사마스크 쓰기, 손발 잘 씻기 등의 5대 생활수칙을 대형서점이나 번화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홍보하고 황사마스크도 전달한다. 또한 TV와 신문, SNS, 전광판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황사 예방법 등을 집중 홍보한다.

기상청에서는 황사발생 및 강도 등에 대한 예·특보를 실시한다.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특보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3단계(옅은 황사, 짙은 황사, 매우 짙은 황사)의 예보기준과 2단계(황사주의보, 황사경보)의 특보기준으로 나뉜다.

심한 황사가 발생하면 기상청에서는 긴급방송을 통해 신속히 황사정보와 행동요령 등을 전한다. 특히 양로원과 어린이집 등 황사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황사특보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총 1만3천6백명에게 14만 건의 황사특보 SMS를 보내 황사예방에 도움을 주었다.

국토부는 황사발생에 대비해 특별 안전운항 대책을 마련했다. 심한 황사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조종사를 투입하고 항공기 회항 시 특정 공항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조치할 예정이다. 운항중인 항공기가 다른 공항에 착륙할 때는 항공사에서 연계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승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08년부터 시작된 '제1차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1차 대책을 개선·보완한 제2차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보완 내용으로는 ▲황사 관측 및 예·특보제 고도화 ▲인체 위해성에 기반한 '황사 조기 경보시스템' 운영 확대 ▲취약계층별 '맞춤형' 황사피해 방지대책 수립 ▲홍보·교육 및 정보전달 체계 강화 등이다. G

글·손수원 기자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5대 생활수칙'

- 창문은 반드시 꽉! 닫습니다.
- 어린이나 노약자, 호흡기 환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갑니다.
- 외출할 때에는 황사마스크를 씁니다.
- 집에 돌아오면 손발과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양치질합니다.
- 야채와 과일은 흐르는 수돗물에 충분하게 씻습니다.

아빠야 엄마야~ 강변으로 캠핑가자

4대강 캠핑장 7곳 연말까지 개방… 한강 이포·금강 합강공원 문 열어

4대강이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온다. 4대강에 들어서는 캠핑장 7개소가 올해 순차적으로 문을 열고, 4대강 이용도우미 포털에서는 3월 19일부터 캠핑 예약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4대강 자전거길 공식 개통을 한 달여 앞두고 국토종주 자전거길 인증제가 시범 운영돼 국민이 함께하는 4대강 생활이 한층 가까워졌다.

모처럼 따뜻한 주말이었던 지난 3월 17일 경기도 여주군 양촌리 이포보 캠핑장. 30여 동의 캠핑 텐트와 캠핑카들이 곳곳에 자리 잡은 가운데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고, 혹은 일찌감치 모닥불가에 앉아 정담을 나누는 가족 단위 캠핑족들이 여유로워 보였다.

지난해 10월 22일 개장한 이포보 캠핑장은 양촌지구, 당남지구를 합쳐 모두 1백25면(오토 60면, 웰빙 65면) 규모의 캠핑장이다. '오토'는 텐트와 주차를 위한 공간이 같은 구역에 있고, '웰빙'은 주차와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캠핑 시설이다.

저녁 햇살에 오렌지빛으로 반짝이는 이포보의 학알 모양 조형물이 건너다보이는 이포보 캠핑장은 용수대, 샤워실, 화장실, 그늘막, 나무벤치, 전기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인근에는 족구장,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어 레포츠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3주째 주말마다 자동차 이동형 카페를 운영해 왔다는 김상호(31)씨는 "주말마다 이 정도 규모의 캠핑족들이 이곳을 찾는다"며 강변에서 신선한 드립커피를 즐기려는 캠핑족들이 있어 하루 40잔가량 커피를 판매한다고 전했다.

4대강 이용도우미 포털서 캠핑 예약 접수

인근 이천시에서 캠핑카를 몰고 온 50대 남성은 "전기시설이 되어 있어 겨울철에 유용했다"며 "여름철에는 더위를 가려줄 그늘이 필요한데, 나무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4대강변에 들어서는 캠핑장 가운데 가장 먼저 개방된 이포보 캠핑장에 이어 3월 19일 충남 연기군 합강리의 합강공원 캠핑장이 문을 열었다. 합강공원 캠핑장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이번에 재개방한 것이다.

동시에 3월 19일부터 4대강 이용도우미 포털(www.riverguide.go.kr)에서는 4대강 캠핑장 사용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전체 4대강 캠핑장은 총 18개소 1천5백31면이며, 올 4월 금강 용화리 캠핑장과 영산강 승촌보 캠핑장이 추가로 문을 여는 등 연말까지 총 7개소 5백67면이 개방된다. 나머지 11개소는 수요를 예측해 순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4대강 이용도우미 포털(www.riverguide.go.kr)에는 4대강 캠핑장 예약 첫날부터 예약 신청이 줄을 이었다.

"2012년 새봄을 맞아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한강을 체험하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이 캠핑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둘째에게 한강 바로 옆에서 자연에 대하여 설명하며 캠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신청자 윤증희)

"초등학교 3학년인 어여쁜 딸아이에게 한강의 아름다움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와 자연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를 체험하도록 하고 싶습니다^^"(신청자 이영수)

"제 (아빠) 생일을 전후하여 아홉살, 여섯살 된 아들과 딸 등 4인 가족이 함께 오토캠핑장 (양촌지구)에서 캠핑과 자전거 여행을 즐기고 싶습니다. 5월 26일~27일(1박2일) 예약을 하고자 하오니 예약 승인을 부탁드립니다."(신청자 김호일)

'주5일 수업제' 영향 가족단위 신청 많아

예약을 시작한 지 나흘째인 3월 22일 현재 한강 캠핑장에는 4백여 건, 금강 캠핑장에는 약 40건의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위의 신청 사연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수가 가족 단위 캠핑족들이다.

올해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어 가족 단위 주말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어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캠핑이 새로운 레저문화로 더욱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캠핑장의 수가 5백여 개가 넘어선 가운데 4대강 캠핑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하면 캠핑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대강 캠핑장 인근에는 보, 생태공원, 자전거길, 체육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볼거리는 물론 생태교육과 가족건강도 챙길 수 있는 가족캠핑의 최적지다. G

글·박경아 기자

문의 4대강 이용도우미 포털 www.riverguide.go.kr
4대강 콜센터 ☎1577-4359

박경아 기자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 캠핑장을 찾은 캠핑족들이 지난 3월 17일 모처럼 따뜻한 봄 날씨를 맞아 휴식을 즐기고 있다.

박경아

4대강 캠핑장 이용 안내

- **예약 가능 캠핑장** 한강 이포보, 금강 합강공원(현재)
- **이용 시간** 이용시작일 오전 11시~이용종료일 오전 10시까지
- **이용 방법**
  - 캠핑 장소는 예약 신청 후 승인완료된 이용객에 한해 선착순 사용
  - 개인별로 텐트나 숙영용품을 지참해 이용
  - 4대강 이용도우미 포털 www.riverguide.go.kr
- **이용 요금**
  - 시범 이용기간은 이용요금 무료(2012년 3월 19일부터), 별도 공지 전까지
- **예약 시 주의사항**
  - 여러 면 예약을 원할 경우 추가로 예약 신청해야 함
  - 예약 취소는 이용일 1일 전까지 가능
  - 예약 후 캠핑장 갈 때에는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예약승인 메일을 프린트하거나 화면캡처를 프린트해 지참
- **캠핑장 이용 시 준수사항**
  -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는 음주가무 등 소란행위 금지
  - 애완견의 배설물은 즉시 처리
  -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리기
  - 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4대강 캠핑장 개방 일정

수계	캠핑장 위치	개방일	수용 규모
한강	경기 여주군 대신면 당남리, 천서리	2011년 10월 22일	오토 60면, 웰빙 65면
금강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	2012년 3월 19일	오토 110면, 웰빙 15면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012년 4월	오토 55면
	충남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2012년 5월	오토 40면
영산강	광주시 남구 승촌동	2012년 4월	오토 40면, 웰빙 20면
	전북 남원시 대강리	2012년 12월	오토 40면
낙동강	경남 함안군 칠서면	2012년 7월	웰빙 120면

※개방일은 관리주체 이관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4대강 따라 자전거가 나갑니다

다음 달 22일 자전거길 공식 개통… 국토종주 인증제 운영

국토해양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3월 20일부터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인증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두 부처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옛 중앙선 능내역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삼걸 행정안전부 차관, 대한사이클연맹(회장 구자열), 국민생활체육 전국자전거연합회 회원 등 2백여 명의 라이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제 실시 기념행사를 열었다.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인증제'는 자전거를 이용한 4대강변 국토 탐방을 기념하고 인증하기 위한 제도로, 참여자들이 종주용 패스포트(3천원)를 구입해 4대강 자전거길 30곳에 마련된 인증센터에서 확인 도장을 받으면 인증서와 메달을 받는다.

오는 4월 22일 4대강 자전거길 공식 개통과 함께 인증제도 정식 운영된다.

4대강 자전거길은 ▲한강(팔당대교~충주댐 1백36킬로미터) ▲금강(하굿둑~대청댐 1백46킬로미터) ▲영산강(하굿둑~담양댐 1백33킬로미터) ▲낙동강(하굿둑~안동댐 3백89킬로미터)에 마련돼 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국토종주(경인아라뱃길~한강~새재길~낙동강 하굿둑 6백33킬로미터)도 자전거로 할 수 있다.

현재 4대강 자전거길 공정률은 92퍼센트로, 일부 구간에서 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국토종주를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인증제 시행을 위해 종주노선 주요지점에서 인증센터(30개소)를 운영하며, 인증센터에서는 패스포트 발급, 스탬프 날인 등 인증관리를 통해 각 종주구간(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4대강, 국토종주) 완주 시 인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게 된다. 일부 인증센터는 스탬프만 이용자가 직접 찍을 수 있도록 무인으로 운영된다.

이용자는 접근이 편리한 인증센터에 방문하여 패스포트를 구입하고, 각 코스 인증센터의 스탬프를 모두 찍은 후 인증센터에서 확인받으면 되며, 인증센터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4대강 이용도우미 포털(www.riverguide.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실시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앱(4대강 도우미)을 통해서도 관광지, 음식점, 쉼터, 화장실, 주차장 등 이용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3월 20일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인증제 실시 기념행사 참석자들이 행사 후 기념 라이딩을 하고 있다.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인증제

- **인증 센터** 전국 30개 센터. 패스포트 구입, 스탬프 날인, 종주 확인
- **인증 방법** 각 코스 내 인증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종주 인증(패스포트에 인증스티커 부착)
- **인증서 및 메달 수여** 강별 종주 시에는 인증서만 수여, 4대강 종주 완료 시 또는 국토종주 완료 시 인증서와 메달 수여
- **인증 코스** 한강(팔당대교~충주댐 136㎞), 금강(하굿둑~대청댐 146㎞), 영산강(하굿둑~담양댐 133㎞), 낙동강(하굿둑~안동댐 389㎞), 국토종주(경인아라뱃길~한강~새재길~낙동강 하굿둑 633㎞)

스마트폰 QR코드 아이폰(위) 안드로이드폰.

자전거 패스포트 표지와 내지.

'꾸벅꾸벅' 춘곤증엔 '뚜벅뚜벅' 걷자

생체리듬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현상… 가벼운 운동이 가장 좋아

봄은 꽃소식과 함께 졸음도 가져왔다. 직장인 B씨도 시도 때도 없이 꾸벅꾸벅 졸기는 마찬가지. 특히 점심식사 후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쏟아진다. 카페인 음료와 커피로 겨우 버텨 보지만 그래도 쏟아지는 졸음을 물리치는 건 늘 어렵다.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오는 춘곤증은 온몸이 나른해지며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졸음이 계속 쏟아지게 한다. 하지만 다행히 춘곤증은 질병이 아니다. 춘곤증은 계절이 바뀌면서 생체리듬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밤의 길이가 짧아져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겨울보다 야외활동이 늘어 혈액순환 양이 증가하고 심장 박동의 변화가 많아진다. 이는 곧 에너지 소비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춘곤증은 피할 수 없는 증상이고 1~2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므로 자연스럽게 넘기는 것이 최선이다. 춘곤증을 완화시키는 데는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맨손체조를 하면 춘곤증이 한결 덜하다.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B씨의 경우처럼 졸음을 쫓기 위해 카페인 음료나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지나치면 밤잠을 설치게 되고 다음날 오히려 피로가 쌓이게 되니 적당하게 섭취해야 한다.

식사 후 잠깐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경우가 많지만 이 자세는 누워 있을 때보다 2배가량 많은 힘이 가해져 척추에 부담을 준다. 이런 자세로 자주 낮잠을 자면 결국 허리와 목, 어깨 통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목이 틀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잠을 자면 귀로 공급되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이명(귀울림)이 나타나기도 한다.

비타민B_1과 C 풍부한 봄나물도 좋아

비타민B_1과 C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춘곤증을 이기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제철 봄나물에는 각종 영양소와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춘곤증을 이기는 데 최고의 음식이다.

채소 중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은 냉이는 칼슘, 철분, 비타민A와 C도 풍부하고 '콜린'이라는 성분은 간 기능을 강화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 주는 효과가 있다. 씀바귀와 취나물, 두릅 등의 봄나물도 좋다.

춘곤증은 몸이 계절에 적응하는 반응으로 1~2주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하지만 운전 중이나 업무 중 쏟아지는 졸음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비타민 보충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이겨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미에는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B가 많이 들어 있어 흰쌀밥대신 먹으면 좋다. 또 콩이나 보리, 잡곡을 섞어 밥을 지어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키위, 딸기, 감귤, 토마토 등의 과일을 먹어 비타민을 보충해 주자.

한편 만성피로증후군이나 계절증후군 등은 춘곤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오랫동안 지속되고 증상도 조금씩 다르다. 이런 증후군은 간염이나 당뇨, 갑상선질환, 빈혈, 암, 심장병 등 각종 질환의 위험신호일 수 있으니 2주 이상 졸음이 계속되거나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도록 하자. G

글과 사진·손수원 기자

TIP 춘곤증에 좋은 생활 스트레칭

1 팔과 다리 쭉 뻗기 의자에 앉아 두 팔을 하늘로 뻗고 다리도 아래로 쭉 뻗어 준다. 근육이 땅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쭉 뻗는다.

2 목덜미 주무르기 두 손을 깍지 끼고 목 뒤로 올려 목덜미를 주무른다.

3 깍지 끼고 팔 뒤로 젖히기 엉덩이 뒤로 양손을 깍지 낀 후 천천히 들어올린다. 이때 양쪽 어깨는 뒤로 모아 아래쪽으로 당긴다.

4 허리근육 펴기 의자에 편안히 앉은 자세에서 배와 허리를 앞으로 내밀며 척추를 곧추세우고 5초간 허리에 힘껏 힘을 준다.

5 목 관절 돌리기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목을 좌우로 각각 3회씩 천천히 회전시킨다. 머리에 몸이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크게 회전시킨다.

꽃도… 나무도… 숲 속은 아이들 세상

서울국유림관리소, 11월까지 유아·초등생 대상 '유아숲체험원' 운영

긴 잠을 자고 있던 숲이 깨어나고 있다. 얼어붙어 있던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나뭇가지엔 새순이 돋는다. 꽃샘추위로 인해 아직 냉기가 만연하지만 숲체험엔 문제될 바 아니다. 숲체험이 이뤄지고 있는 북한산 숲체험장을 찾았다.

경복유치원 7세반 아이들이 북한산 유아숲체험원을 찾아 숲체험을 하고 있다. 숲체험 교육은 학교폭력, 인터넷중독뿐 아니라 창의력, 인성함양 교육 등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친구들! 숲 놀이를 하러 가기 전에 숲 요정이랑 새들, 아직 잠자고 있는 곤충들에게 인사부터 해볼까요?"

북한산 자락 숲체험장. 숲해설가 원진희씨의 제안에 일곱 살 유치원생 아이들이 일제히 두 손을 입에 모으고 산을 향해 인사를 한다. "숲 요정 안녕! 새들아, 곤충들아 안녕! 우리 숲 놀이 왔어."

입산을 알리는 짤막한 의식을 거행한 아이들이 숲해설가를 따라 풀숲을 밟는다. 아직은 마른 풀과 낙엽이 더 많은 숲이지만 아이들은 두리번거리며 나무와 땅을 관찰하느라 바쁘다. 통나무 건너뛰기를 하고 나니 나무블록 체험장이 나온다.

아이들은 투박한 듯 보이는 나무블록을 들고 제각각 블록쌓기 놀이를 한다. 블록으로 통나무를 두드려보기도 하고, 두드리는 박자에 맞춰 동요를 합창하기도 한다.

잠시 후, 숲해설가가 나무링을 땅바닥에 대고 "이 동그라미 안에 뭐가 보이냐?"고 묻자 준형이가 "초록 싹이 나고 있다"고 답한다. 다음은 꽃봉오리를 관찰할 차례다. 확대경을 통해 붉은색 꽃봉오리를 본 아이들은 "와, 진짜 꽃이다" 하며 감탄한다. 이에 숲해설가는 "다음 주쯤에 오면 이 꽃봉오리에 분홍색 매화가 피어 있을 것"이라면서 "다함께 예쁜 꽃을 피워달라고 기도하자"고 말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아이들은 두 손을 모아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기도했다.

매월 프로그램 바꿔 계절의 변화 느끼게

아이들은 숲체험이 진행되는 동안 땅에 엎드리기도 해보고, 손수건으로 만든 다람쥐를 이용해 다람쥐 집 찾기 놀이도 했다. 숲체험 도중 구절초를 뜯어 향기를 맡아본 아이들은 "엄마에게도 보여줄 것"이라며 구절초 이파리를 손에 꼭 쥐고 다니기도 했다.

이날 숲체험장을 찾은 경복유치원 7세반 아이들은 1시간가량 숲체험을 하고 돌아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다.

확대경을 통해 꽃봉오리를 관찰하고 있는 아이들. 모든 게 즐겁다는 표정이다.

숲체험 교육이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비만 및 환경성 질환과 유아·청소년의 창의력·인성함양 및 건강증진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국의 숲체험장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오는 11월까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아숲체험원'(구 '숲유치원')을 운영한다. 서울국유림관리소 '유아숲체험원'은 서울 수락산(노원구 상계동 지역), 북한산(성북구 정릉동 북악산 지역), 인천 청량산(연수구 청학동)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2명의 숲해설가가 소속돼 진행을 맡고 있다.

숲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매월 달라진다. 2월에 겨울 숲에서 동물 찾기를 했다면 3월엔 꽃과 새순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식이다. 4월에는 나물 캐기 놀이, 꽃이 만발하는 5월에는 향기나는 식물 찾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41개 유치원·어린이집과 협약 맺어

앞서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2월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41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 속에서 자연친화적인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오감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갑대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연주의 체험교육이 더 확대되길 바라며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아숲체험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의 유아숲체험원은 연초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희망기관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기관 외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족, 단체 등은 인터넷 공식카페 등을 통해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다.

글·박근희 기자 / 사진·염동우 기자

문의 산림청 www.forest.go.kr | 북한산 숲체험원 cafe.naver.com/foresters
청량산 숲체험원 cafe.daum.net/insansamo

조갑대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아이들만의 체험학습 공간 만들었어요"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07년부터 수락산, 북한산, 청량산 등의 국유림을 활용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심에서 자라는 유아들에게 숲체험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만 7천여명이 숲체험원을 이용했다.

조갑대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향후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을 늘려 더 많은 아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도 유아숲체험원 참여희망 신청 결과는 어땠는지요.

올해 1월에 산림청 홈페이지에 참여희망 단체를 모집 공고하여 41개 단체를 선착순 접수받았습니다. 멀리 인천에서까지 새벽부터 관리소에 방문·접수하신 분도 있고요.

접수 당일 오전에 접수가 마감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으로 더 많은 기관에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유아숲체험원이 다른 숲체험장과 차별점이 있다면요.

자연환경과의 접촉이 어려운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 속에서 자유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아이들만의 체험학습 공간을 따로 조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유아숲체험원은 지금까지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한국형 유아숲체험원 운영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으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요.

우선 숲체험을 통해 유아기부터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숲체험은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자연과 교감하는 체험 위주의 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전인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보다 상상력과 의사소통 능력, 집중력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숲체험원 확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서울국유림관리소 유아숲체험원은 현재 서울 수락산, 북한산 및 인천 청량산 3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의정부시 금오동에 약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학부모와 유아교육기관, 저학년 초등학교에까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연차별로 대상지를 확대 조성해 더 많은 아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딸기밭 가득한 삼례읍의 한 딸기농장 풍경. 삼례딸기는 유난히 향기롭고 달다.

완주의 봄날

삼례 들판엔 꿀물 딸기향 가득 빛고운 한지도 질세라 은은한 향

꽃향기는 대지로부터 전해진 포근한 기운과 뒤섞여 어느새 마음속에 사뿐히 내려앉았고
길 위의 여행자는 납작 엎드려 꽃을 피워 낸 풀꽃들에게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넸다.
달콤한 꽃과 열매의 향기, 은은한 한지의 향과 맑은 숲이 공존하는 곳. 여기는 전라북도 완주다.

대둔산 금강구름다리. 아찔한 높이의 협곡 사이를 가르고 있는 대둔산의 명물이다.

바람의 끝자락에 매달린 달콤한 향을 좇아 만경강변에 이르니 바로 완주군 삼례읍이다. 전주시내에서 지척인 삼례읍 들녘에 서니 이곳이 바로 달달한 냄새의 진원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줄지어 길게 늘어선 비닐하우스마다 온통 딸기, 딸기뿐이다.

요즘은 딸기 수확의 끝자락. 비닐하우스마다 분주한 손길이 가득하다. 하우스 안으로 들어서니 탐스러운 붉은 빛의 딸기가 줄기마다 주렁주렁 달라붙었다. 흰 꽃과 초록 잎사귀 위로는 꿀벌이 붕붕 날아다니고 그 아래로 먹음직스럽게 익은 빨간 딸기가 빠끔히 고개를 내밀고 있다.

한창때인 초봄을 조금 넘겨 맛이 덜하다며 겸손해하는 촌로가 건네준 딸기를 하나 얼른 입에 넣고는, 이내 농부를 향해 밉지 않게 눈을 흘겼다. 딸기는 봄의 싱그러움 그 자체였고 꿀맛이었다. 지나치지도,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은 딱 알맞은 달고 새콤한 맛이었다.

이게 덜한 맛이라면 도대체 한창때의 딸기는 어떤 맛이란 말인가. 딸기 맛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농부는 이내 태도를 바꿔 삼례 딸기의 자랑에 나섰다. "삼례읍 만경강변의 비옥하고 질 좋은 황토에서 자란 딸기가 전국 최고라는 것"과 "비타민이 풍부해 봄을 맞은 나른한 몸의 기운을 보충하는 데 좋다"는 이야기다.

매년 3월 말이면 삼례의 들판은 딸기축제로 욱실욱실 들썩인다는 소식도 전해 준다. 실은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은 따로 있었다. 올해 유난히 비싼 딸기값의 원인을 알고 싶어서다. 그런데 딸기 맛에 홀랑 정신이 팔려 정작 궁금해한 것은 묻지도 못했다.

길을 나선 김에 완주 대아수목원으로 향했다. 봄이면 온통 자홍색의 산철쭉이 붉은 물을 들이고 전국 최대 규모의 금낭화 자생군락지에 분홍 꽃이 만발하는 완주의 자랑거리다.

화전민도 떠난 오지에 선 대아수목원

봄을 기다리는 꽃은 물론 이뿐만이 아니다. 땅을 향해 홍자색 꽃을 피우는 백합과의 얼레지와 보라색이나 연분홍색의 입술 모양을 가진 꽃을 피우는 현호색, 독성이 강해 잘못 먹으면 미치광이가 된다는 '미치광이풀' 따위의 풀들이 수목원 여기저기에 꽃을 피워 댄다. 더불어 벚꽃이나 튤립, 개나리도 이 봄의 주인공이다.

해발 5백18미터의 산자락 아래 들어앉은 대아수목원은 본래 전국에서 손꼽히는 오지였다. 화전민조차 일구던 밭을 버리고 나간 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던 터라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어 수십 종의 야생 동물이 살고 있다. 이곳은 아이들과 함께 찾기에도 좋다.

연중 무료로 수목원 둘레길의 숲을 해설가와 함께 걸으며 재미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수목원 내에는 숲과 나무, 식물 등에 관

한 자료실이 잘 갖춰져 있다. 게다가 엄청난 규모의 유리 온실에는 바나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열대 나라에서 건너온 나무들도 가득하다. 수목원 산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 시냇가에선 와글와글 큰 소리가 나는데 이곳을 들여다보면 개구리떼를 만날 수 있다.

전주와 이웃한 완주의 남쪽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한지다. 후백제에서 조선왕조까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전주의 문화적 핵심과 닿아 있는 한지는 이웃한 완주와 '한지로드'로 연결된다.

완주 한지의 중심지는 소양면 신원리 대승마을이다. 이곳은 조선 선조 이후 1990년대까지 마을의 가장 주된 소득원이 한지일 정도로 주민 대다수가 한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대승한지마을은 완주군이 전국 최고의 한지 생산지로 명성을 날렸던 소양면 3개 마을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1만3천4백20제곱미터(약 4천평) 부지에 전통한지 제조 체험관, 전시장, 닥나무 건조처리장 등을 조성한 곳이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수의 마을 사람이 한지 제조로 생계를 유지했고 지금도 대를 이어 한지 제조를 하는 한지 장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마을 일대에는 1930년대 일본 강점기 시대에 전주와 완주 지역에서 제조된 한지를 모아 전국 곳곳으로 판매했던 동양산업사(한지조합)의 사택과 당시 한지를 만드는 초지공들의 숙소인 줄방, 한지공장인 지소(紙所) 등의 유적이 복원돼 있는데, 지소 안에서는 곽교만씨가 종이 뜨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고려한지의 맥을 잇는 대승마을. 다양한 한지관련 체험을 할 수 있다.

소양면 한지마을~송광사엔 아름다운 벚꽃길

30년 동안 한지를 만들어 왔다는 그는 마침 전통 방식의 외발 기법으로 커다란 나무통 안에 물과 함께 섞여 있는 닥섬유를 촘촘한 망에 거르며 종이 뜨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의 진지하고도 완숙한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했다. 그에게서 한지 만드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한지 한 장을 만드는 데 사람의 손이 백번 이상 가야 하기 때문에 한지를 일컫는 말인 '백지'를 흰백(白) 자와 동시에 일백백(百) 자를 쓴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지는 오래된 미래'라고 덧붙이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참 동안 빛 고운 한지의 색상과 은은한 향에 빠져 있었다.

4월의 중순 즈음 완주 소양면의 송광사로 여행길을 잡으면 팝콘처럼 흩날리는 흰 꽃비를 맞을 수 있겠다. 전주에서 완주를 거쳐 진안까지 이어지는 국도 26호선상의 소양면 마수마을에서 송광마을까지 2킬로미터에 이르는 길 양옆으로 45년생 벚나무가 빼곡히 늘어서 있다. 이 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올라 있지만 경남 하동 쌍계사, 경주, 제주 서울 여의도 등등 벚꽃 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아는 사람만 찾던 이 멋진 길이 올해부터는 유명해질 것 같다. 오는 4월 13일부터 사흘간 소양면 주민들이 주축이 돼 첫 번째 벚꽃축제를 펼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길 위에서 잠깐 잊고 살았던 순수했던 시절을 추억해 보고 순천 송광사와 이름이 같은, 신라시대 때 창건된 완주 송광사도 함께 들러보며 아늑한 절집의 봄 정취에 마음을 남겨 두기로 한다.

전주에서 완주로 이어지는 봄 여행의 마지막인 완주의 가장 북쪽 대둔산은 완주의 가장 북쪽, 충남 금산과 논산시에 걸쳐 뻗어 있는 해발 8백78미터의 그림 같은 산이다. 그리 높지 않은 산임에도 산자락을 따라 기암괴석의 봉우리들이 삐죽삐죽 솟아 있는 데다 바위와 봉우리마다 여러 전설을 지니고 있어 더욱 신비롭게 느껴진다.

봄의 입구에 선 대아수목원 풍경. 4월이면 지천에 산철쭉과 개나리, 튤립이 피어난다.

본래 대둔산은 가을날의 울긋불긋 단풍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볕 좋은 봄날의 산 여행에도 좋다. 멀리서 바라본 봄의 숲은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듯 보이기도 한다. 정상까지는 3시간30분 정도의 산행을 하거나 케이블카를 이용해 단숨에 올라갈 수도 있다.

단풍이 유명한 대둔산은 봄 산행도 매력

케이블카에서 내려 숨을 헐떡이며 가파른 계단을 10분쯤 올라가면 유명한 금강구름다리가 나타난다. 금강통문을 가로질러 임금바위와 입석대를 잇는 이 구름다리는 길이 50미터, 폭 1미터, 높이 80미터로서 삼선계단과 함께 대둔산의 명물로 알려져 있다.

금강구름다리를 건너는 일은 꽤나 무섭다. 가끔 금강다리를 앞두고 서로에게 앞장서라며 실랑이하는 부부도 목격된다(!). 크게 흔들리지는 않지만 워낙 까마득한 높이에 매달렸는지라 다리 위에서 발아래를 내려다보는 일엔 크나큰 용기가 필요하다. 두려움을 떨칠 수만 있다면 그 다리 위에서 보이는 풍경에 왜 이 산을 '호남의 금강산'이라 칭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금강구름다리는 시작에 불과하다. 삼선계단은 한술 더 뜬다. 커다란 바위를 기어 올라가는 형국의 이 계단은 말이 계단이지 경사도 '51도'의 무시무시한 사다리다. 구름다리 끝 편에 앉아 삼선계단을 오르는 누군가의 등을 바라보는 일만으로도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삼선계단을 올라 조금만 더 가면 대둔산의 정상인 마천대에 이를 수 있다. G

글·고선영 (여행작가) / 사진·김형호 (사진작가)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완주 여행은 호남고속도로 삼례IC나 익산IC 또는 완주IC에서 시작할 수 있다. 삼례읍의 대규모 딸기밭은 삼례IC에서 나오면 곧바로 강변을 따라 펼쳐진다.
대승한지마을은 26번 국도를 이용해 소양면까지 간 다음 화심삼거리에서 익산·전주 방향으로 좌회전해 들어가면 된다.
대아수목원은 송광사와 대아저수지를 지나 대아리 방향으로 가면 닿을 수 있고 대둔산도립공원은 732번 지방도를 이용해 삼기삼거리까지 간 다음 삼거리에서 대전방향 17번 국도를 이용하면 된다.

먹을 곳 완주에 가면 꼭 소양면 화심리의 순두부마을을 찾도록 한다.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집은 **화심순두부**(☎063-243-8268).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 대형 건물로 이사했는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거대한 휴게소의 내부를 보는 듯하다.
커다란 뚝배기에 담겨 나오는 순두부는 흔히 상상하는 몰랑몰랑하고 부드러운 그것과는 달리 거칠고 투박한 느낌이지만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있다.
어린이 손님이나 색다른 메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두부돈가스도 판매한다. 여기에 후식으로 먹는 콩도넛과 콩아이스크림 역시 인기 만점이다. 완주 송광사는 여름날의 연꽃으로 유명한데 송광사 바로 옆의 **황금연못**(☎063-246-8848)에서는 다채로운 연밥과 연근 관련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잠잘 곳 숙소는 완주와 가까운 전주에서 묵는 편이 좋겠다. 전주 한옥마을에는 **한옥생활체험관**(☎063-287-6300)을 비롯해 **승광재**(☎063-284-2323)와 **양사재**(☎063-282-4959), **학인당**(☎063-284-9929), 동락원, 소담원 등 10여 곳의 한옥 숙소가 있다.
한옥 숙소마다 다례 체험이나 판소리, 한지 만들기, 전통예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아이들과 함께라면 미리 알아보고 예약하면 좋겠다.
여러 한옥 체험 시설 중 양사재는 전주의 옛 향교 부속 건물로 사용되던 아담하고 정갈한 한옥 민박집으로, 한때 시인 이병기 선생이 머무르며 다작한 곳이기도 하다. 개다리소반에 정갈하게 차려 내오는 아침식사도 만족스럽다. 대부분의 한옥 민박은 2인 기준 6만원부터 시작한다.

즐길거리 완주를 여행할 땐 가까운 전주 한옥마을을 함께 둘러보면 좋다. 7백여 채의 한옥과 함께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문화시설이 모여 있어 멋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면 전통음식이나 전통문화 등을 소개하는 체험시설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 좋다.
오목대 앞 관광안내소에서 시작하는 한옥마을 정기투어(평일 오후 2시, 주말과 공휴일 오전 10시, 오후 1시, 3시)에 참여하거나 경기전 해설투어(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에 참여하면 더욱 흥미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63-282-1330

교하도서관은 아트센터, 소극장, 브라우징룸, 문화강연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왼쪽). 헤르만 헤세의 서재를 실제처럼 꾸며놓은 노벨문학관(오른쪽 위)과 멀티미디어홀.

교하도서관은 경기도 대표 도서관 건립 전까지 경기도 대표 도서관의 역할을 한다.

경기도 대표 도서관에 지정된 파주 교하도서관

책향기 물씬 풍기는 '지역주민의 사랑방'

'2012 독서의 해'를 맞아 지자체마다 도서관 특화 사업이 한창이다. 그중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교하도서관은 지난 1월 경기도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경기도 독서 인구의 산실, 교하도서관을 찾았다.

교하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사로잡은 건 1층 문헌정보실에 자리 잡은 보라색 대형 소파였다. 이곳에서는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딱딱한 의자 대신 보라색 소파가 도서관을 찾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여럿이 함께 편히 쉬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소파, 그것도 심리적 휴식과 안정을 상징하는 보라색이라…. 도서관 전체로 보면 비록 작은 요소이지만 그것부터 여느 도서관과 사뭇 다르다. 마치 "어서 와 편히 앉아 책을 읽으세요"라고 권유하는 듯하다.

총 5층으로 지어진 교하도서관은 그 규모가 남다르다. 크기로 따진다면 최근 지어진 도서관 중에서 손꼽힐 정도다.

2개의 문헌정보실 외에도 10일마다 새로운 기획이 펼쳐지는 교하아트센터,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영화 극장으로 변신하는 소극장, 도서의 원화나 신간정보 등이 전시공간처럼 펼쳐진 브라우징룸, 강연화가 열리는 문화강연실, 각종 소모임이 열리는 나눔실 등 그 내용 또한 알차다.

하지만 교하도서관의 진가는 그 크기만으로 압축할 수 없다. 도서관 곳곳에 책의 향기보다는 사람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다. 책을 읽다가 언제고 차 한잔 마시거나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쉴 공간이 곳곳에 마련돼 있다.

행여 책에 얼룩이라도 질까 화장실 옆 구석에 커피자판기 한두 개 놓아둔 여느 도서관 풍경과 달라도 한참 다르다. 바로 이것이 교하도서관만의 힘, 대면 서비스다.

소극장·문화강연실 등 갖춰 지역문화 산실로

교하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전 직원이 모두 사서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곳의 사서는 단지 정보를 분류, 관리하는 역할에만 머물지 않는다.

교하도서관 어린이청소년서비스팀의 전은지 사서는 "어린이독서클럽도 직접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들 사이에 도서관이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서관 안내 부스도 사서들이 번갈아가며 근무할 정도다. 어린이독서클럽뿐만이 아니다. 이곳의 사서들이 만들어낸 기획은 여느 기획집단 빰칠 만큼 스펙터클한데 그간 진행해온 기획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진다.

근교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들을 졸라 저자 강연회와 원화 전시 등을 진행하는가 하면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와 함께 '도서관으로 간 다큐'를 진행하기도 했다.

파주출판단지 내 영화관은 '대한독립영화만세'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해오며 독립영화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학교로 찾아가 청소년 교양강좌를 펼치고 어르신 정보화 교육을 하기도 한다.

전 직원인 15명의 사서가 '가장 도서관적인 게 무엇일까?'라는 적극적인 고민을 실천에 옮기면서 이루어낸 성과다. 이곳에서 사서로 살아가기는 책만 좋아해서는 불가능한 일인 듯싶다. 하지만 바로 자기계발에 투철한 사서들이야말로 교하도서관을 경기도 대표 도서관으로 우뚝 서게 한 힘이기도 하다.

현재 교하도서관은 지역 도서관이자 경기도 대표 도서관의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한시적이지만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되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아 프로그램이 이전보다 다양해졌다.

교하도서관 장지숙 관장

"도서관이 지역주민을 예술로 이끌어야죠"

교하도서관이 애당초 직원 1백퍼센트가 사서로 구성된 데에는 장지숙 관장의 역할이 컸다. 장 관장은 사서의 역할을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즉 지역주민에게 정보와 자료를 중계해주는 역할로 정보·자료 가이드"라고 설명한다.

교하도서관이 경기도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경기도 대표도서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교하도서관을 한시적으로 경기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 개관하게 된 것입니다. 교하도서관이 경기도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된 데에는 파주출판단지와 가깝다는 입지적 요인도 있고, 최근 지어진 도서관 중 규모가 크다는 요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직원을 모두 사서로 뽑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공공 도서관을 제외한 지자체 공공 도서관 중 정사서가 15명으로 구성된 곳이 없습니다. 사서를 뽑을 때도 총 월 2일의 휴일 중 1일은 전체 교육으로 할애한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저 사서의 역할에만 멈추어 있으면 평범한 사서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획기적인 기획들이 눈을 모으는데,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요?

개관 초부터 문화교실 같은 프로그램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만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했지요. 정보와 자료를 중심으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이를테면 클래식음악 감상회를 열어 도서관 내에 연관된 자료나 CD를 소개하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지역주민 한분 한분이 도서관을 통해 예술적 향유의 첫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대표 도서관 지정 후 달라진 점이 있는지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내용이 좀더 다양해졌습니다. 정재승, 김훈, 유홍준 등 대표적인 명사와의 만남이 진행됐고, 최근엔 외국어대학교 노벨문학상연구소와 연계해 대표적인 노벨문학상 작가 전시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가 김훈, 유홍준 교수,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등도 교하도서관을 다녀갔다. 2008년 9월 개관 이후 벌써 도서관 회원이 3만명을 넘었다. 이 또한 우연이 아닌 듯싶다. 친근한 도서관, 참여하는 도서관, 진화하는 도서관. 모두 교하도서관이 꼽은 비전이다. 그 사이에 사람(지역주민)과 책(정보)이 있다. G

글·문영애 객원기자 / 사진·정정현 기자

문의 교하도서관 www.gyohalib.or.kr ☎031-940-5153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편의시설 일반에 개방

7월부터 주차장·운동장·체력단련실 등 주민들도 이용 가능

좁은 골목길에 가득 주차된 차량들. 한낮인데도 골목길은 빈 공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차된 차들로 가득하다. 서울시의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아파트 단지는 덜하지만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은 매일 주차전쟁을 치른다.

하지만 올 7월부터는 주차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앙부처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주차장이 국민에게 개방되기 때문이다. 또한 운동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실 등도 개방되어 주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공사 등 5곳은 5월부터 시범 개방

정부는 지난 3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와 학교의 편의시설물을 개방했으나, 공공기관은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개방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의 편익을 보다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5일 수업제 실시와 연계하여 앞으로 개방될 공공기관 편의시설을 학생들의 주말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중앙부처 소속 기관과 소관 공공기관의 보유시설 중 이용수요가 높은 주차장, 운동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실 등을 우선 개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개방 대상 기관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은 6월 중 확정·발표한다. 아울러, 개방시설 운영계획이나 이용방법 등은 부처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알리오,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을 주민복지 차원에서 개방하는 것은 국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임을 강조하며, "이번 개방을 계기로 민간 분야에서도 시설물 개방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공공기관도 시범 개방기관으로 지정되어, 다른 공공기관에 앞서 올해 5월부터 선도적으로 편의시설물을 개방하게 된다. G

글·박은지 인턴기자

문의 공공기관 알리오 www.alio.go.kr

청백리는 성적순이 아니다

율곡 이이는 일곱살 때인 1542년(중종37년)에 이미 〈진복창전(陳復昌傳)〉이라고 하는 짧은 전기를 썼다. 거기에서 이이는 진복창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렇게 평하고 있다. "내가 진복창이라는 사람됨을 보니, 속으로는 불평불만을 품었으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려 한다. 그 사람이 만약 뜻을 얻게 된다면 나중에 닥칠 걱정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실록에 따르면 진복창은 1535년(중종30년) 문과에서 장원급제를 했다. 당대의 천재였던 셈이다. 3년 후 사헌부 장령(정4품)으로 승진한 진복창에 관한 인물평이 나오는데 "사람됨이 경망하고 사독(邪毒)하다"고 되어 있다. 그 때문인지 중종 말년까지 진복창은 외직을 떠돌며 이렇다 할 중앙관직을 얻지 못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했다.

명종이 즉위한 직후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외삼촌 윤원형이 실권을 장악했다. 이때 진복창은 윤원형의 심복이 되어 자신을 곤경에 빠뜨렸던 사림세력을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훗날 그가 죽었을 때 실록의 사관은 그를 '독사(毒蛇)'라고까지 불렀다. 실제로 명종 때 진복창이 보인 행적을 추적해 보면 오히려 '독사'라는 별명도 칭찬에 가까울 정도다.

을사사화 직후인 1545년 명종 즉위년 진복창은 사헌부 장령을 맡아 화려하게 중앙정계에 복귀했다. 이후 그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요직을 오가며 정적을 무자비하게 탄핵하고 퇴출시켰다. 그의 뒤에는 윤원형이라는 당대 실세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다.

명종3년 4월 19일 대사헌 구수담이 당대의 실력자인 좌의정 이기의 부정부패를 정면으로 탄핵하고 나섰다. 구수담은 사림으로 내외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고 진복창도 구수담에게 학문을 배운 바 있다. 이때 대사간인 진복창도 구수담을 거들고 나섰다.

한때는 이기에게 빌붙어 영화를 누렸지만 이기가 윤원형의 견제를 받기 시작하자 미련 없이 배반한 것이다. 진복창이 이기를 배반한 것은 서곡에 불과했다. 원래 진복창이 첫번째 사헌부 장령이 될 때 힘써 추천한 이는 훗날 을사사화에 '공'을 세우게 되는 허자라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대사헌에 올라 실세로 떠오른 진복창은 이조판서 허자도 우습게 알기 시작했다. 결국 진복창은 허자를 제거하는 데 앞장선다.

당대 천재였으나 경망하여 외직 떠돌아
명종조 윤원형의 심복이 되어 사림 탄압
동료도 은인도 득이 안되면 미련없이 배신
젊은 신료들 반발하자 끝내 유배지서 죽음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던가? 사림의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들까지 진복창의 공작에 의해 화를 입게 되자 홍문관 직제학 홍담을 비롯한 뜻있는 젊은 신료들이 들고일어났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동안 진복창의 손발 노릇을 하던 사헌부, 사간원까지도 돌아섰고 조정 대신도 진복창을 멀리 내쳐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올렸다. 결국 윤원형은 진복창을 더 이상 보호하다가는 화가 자신과 누님 문정왕후에게도 미칠 것을 예감하고 진복창을 삼수(현 함경남도 삼수군)로 유배 보냈다. 삼수갑산의 그 삼수다.

그러나 삼수에 유배 간 진복창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다. 백성의 땅을 빼앗고 공공연하게 뇌물을 요구하며, 심지어 집에 개인적으로 형틀까지 설치하여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불러다가 곤장을 치곤 했다. 결국 조정에 보고가 올라가 진복창은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가죄(加罪)를 받아 위리안치(죄인이 귀양지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던 일)되었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문과 장원급제자로서는 너무나도 비참한 일생의 마감이었다. G

글·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스마트폰 등 모든 IT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보안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 표준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국 보안 방식, 인터넷 경제 확대 막는다

위험요소 있는 PC종속 방식 고집… 국제표준 외면 말아야

인터넷을 통한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2010년에 7백50억 달러로 영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나타났다. 보스턴컨설팅 그룹은 한국의 인터넷 경제 성장률 또한 연평균 7.4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인터넷 경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본다.

인터넷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다. 아직 한국에 출시되지 않은 신제품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국제 항공 배송을 선택하면 3일 만에 손에 넣을 수 있다. 인터넷 경제가 일반화하면서 전세계가 시장이 되고 지구인 전체가 고객인 시대가 되었다.

국가 간 경계뿐 아니라 현실과 가상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내부 결제용으로 자체 화폐인 페이스북 크레딧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국가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해 현실의 돈이 사이버상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런 결제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선불카드를 구입하면 사이버 화폐로의 전이가 가능하다.

국경 없는 사이버세계 진출에 결정적 난관

회원 수 8억명을 넘기고 있는 페이스북은 그 자체로 거대한 단일통화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페이스북은 외부 사이트에서 자사 크레딧 결제를 지원함으로써 사이버 화폐로서의 영역을 전 인터넷으로 넓히고 있다.

페이스북 크레딧과 다른 통화와의 환율이 고시될 날도 멀지 않았다. 어쩌면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가상 화폐가 국제 기준 통화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덕분에 일찍부터 전자상거래가 발전했다. 2011년 전자상거래 규모는 1천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금액은 국내총생산의 8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비중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인터넷 경제는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경제의 성장이 곧바로 국내총생산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인터넷 거래 방법이 편리해서 새로운 구매를 발생시킬 경우도 있겠지만 인터넷 경제 성장의 대부분은 기존 오프라인 거래가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경제 규모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국경 없는 사이버 세계로의 진출이 우선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 부분에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 경제 확대의 걸림돌 중에서 가장 심각한 점은 한국의 보안 방식에 있다. 한국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설치된 PC가 필요하다. 보안 접속을 위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야 하며 액티브엑스라는 특별한 방식을 통해 해킹 방지 툴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국제 표준 보안 방식은 인터넷 서버와 웹브라우저, 그리고 제3의 인증기관이 안전 접속을 보증한다. 하지만 한국의 보안 방식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먼저 다운 받아야 한다. 외국 사용자들이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한국의 보안 방식을 따르면서까지 상품 구매에 나설지 의문이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욕구가 큰 외국인이 이 모든 과정을 참고 따랐다고 해도 마지막 결정적인 난관이 남아 있다. 구매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정당한 사용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감을 온라인화시킨 공인인증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소위 윈도우-익스플로러-액티브엑스-전용 보안 프로그램-공인인증서의 다섯 단계를 거쳐야 제품 구매가 가능한 현실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또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2천만명을 넘어선 상태라 더 이상 PC에서만 가능한 결제 방식을 고집할 수가 없게 되었다. 보안 업체들은 애플과 리눅스 등 일부 데스크톱 운영체제를 지원해 오고 있지만 날마다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수많은 IT 기기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 시대 역행… 수많은 IT 기기 지원 못해

한국의 보안 방식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등 새로운 IT 기기가 나올 때마다 전용 결제앱을 제작해야 한다. 스마트폰 운영체제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도 필요하다. 결국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들만 전자상거래 앱을 제공할 수 있고 인기 있는 기기에서만 거래가 가능해진다. 때문에 인기 없는 스마트폰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제한되고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의 앱도 찾아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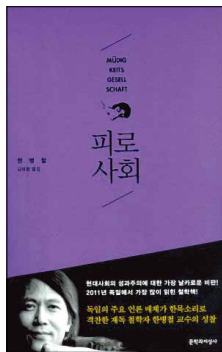
하루빨리 모든 IT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보안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 표준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다. 표준 방식은 다양한 PC 운영체제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기기에서 사용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웹브라우저에는 이미 표준 보안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즉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표준 방식 보안을 사용하면 단 한 번의 개발로 현존하는 모든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되더라도 고칠 필요가 없다. 미래에 어떤 기기가 나오더라도 수정 없이 대응이 가능하다. 표준 방식은 추가 개발비가 들지 않으므로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에도 좋은 방식이다.

사이버 경제 주도할 정책변화 시급

지구 전체의 경제활동이 점차 인터넷 경제화하면서 오프라인의 대기업과 맞먹는 거대 인터넷 기업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업체, 가장 규모가 큰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하는 업체, 그리하여 전세계에서 통하는 단일통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업체가 사이버 세계를 넘어 현실 세계를 지배할 거대 경제 주체가 될 것이다.

한국은 국경 없는 사이버 시장 공략을 통해 바로 이런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인터넷 강국 중의 하나다. 특히 발달된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 문화가 외국의 사용자를 만난다면 엄청난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뿐 아니라 전세계 소비자를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절실하다. 포스트 PC 시대에 더 이상 PC에 종속적인 보안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사이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가 시급하다. 전세계에 통용될 안전하고 편리한 보안 방식 없이는 인터넷 경제 확대는 불가능한 일임을 정책 입안 당국과 보안 업체, 그리고 전자상거래 당사자들은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G 글·김인성 (IT 칼럼니스트)

〈피로사회〉
날 피로하게 만든 게 '나'?

한병철 지음 · 김태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 1만원

대박을 예고하는 책이다. 출간된 지 2주 만에 이미 1만부를 돌파했다. 역자 후기를 포함해 1백28쪽 분량. 마음먹으면 반나절이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분량이다. 그러나 막상 들춰 보면 니체, 푸코, 보드리야르, 아렌트, 카프카, 한트케 등 서양 철학자·작가 이름과 인용문이 매쪽 등장한다. 논리적이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단어와 문장 사이에서 길을 잃기 십상이다. 그런데 왜 인기일까? 일단 제목 덕분이 큰 것 같다. '간 때문이야'라는 CF송이 히트를 쳤듯이 이 책은 지금 우리 사회의 대중이 공통적으로 절감하고 있는 단어를 건드리고 있다. 바로 '피로'다.

독일 카를스루에 조형예술대 교수인 저자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간명하다. 과거엔 남(타인)을 착취했다면 지금은 자기를 착취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이 책의 첫 문장은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고 시작한다. 과거의 질병이 밖(타인)으로부터 비롯됐다면 현재의 질병은 안(나)으로부터 발병한다는 것이다. 밖으로부터의 질병은 백신을 쓰거나 치료약으로 막으면 된다.

그러나 안으로부터의 질병은 나 스스로가 원인이기 때문에 막고 싸울 수도 없다. 한 교수에 따르면 20세기까지는 '규율사회'였다. 즉 '~해서는 안 된다' '~해야 한다'가 강제되는 사회다. 강제적 부정성이 규칙이다. 다른 말로는 '면역학적 패러다임'의 시대였다.

잘할 땐 '우리', 못할 땐 '고독한 나'만 남아

반면 현재는 '성과사회'다.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이 사회의 특징은 '안 된다'가 없다. 대신 무한정 '할 수 있다'고 한다. 자유다. 강한 긍정성, 과잉 긍정성이 규칙이다. '예스 위 캔(Yes, we can)'이 시대정신이다. 여기선 '우리(We)'가 중요하다. 우리 모두 잘할 수 있는데, 이젠 뭔가 못하면 자기 책임이다. 그런 과정에서는 착취하는 주체도 대상도 모두 자기 자신이 된다.

나 스스로가 주인인 동시에 노예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소진(消盡)되어 죽는 순간까지도 스스로를 착취하면서 성과 올리기에 매진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자유롭다고 착각하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우리'이지만, 못할 때는 '고독한 나'만 남는다. 그래서 생기는 대표적 질병도 우울증이다.

흥미로운 것은 '피로'라는 점에선 독일이나 우리나 비슷하다는 점. 2010년 독일에서 출간된 이 책은 지금까지 3만 부가 팔리며 독일 사회에 '피로사회'라는 유행어를 만들었다고 한다.

글 · 김한수 (조선일보 문화부 출판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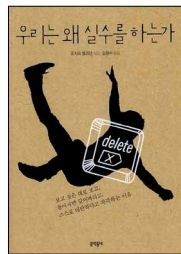
새로 나온 책

연암 박지원
임채영 지음 | 북스토리 | 1만2천8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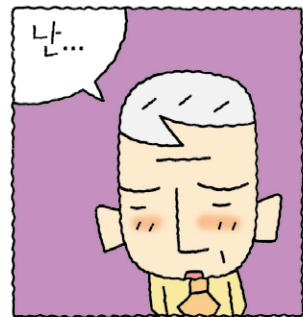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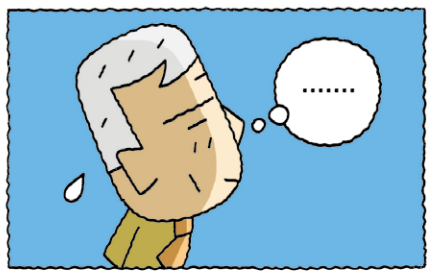
쉰다섯의 나이에 안의 현감으로 부임하면서 보낸 5년간의 기록을 통해 박지원의 인간적인 고민과 노력들을 담았다. 실학자로서, 문장가로서의 연암이 아닌 백성을 생각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로서의 삶이 진솔하게 배어 있다. 가난한 백성들을 보고 후대에는 조선이 부강한 나라가 돼 있길 바라는 소망과 믿음을 절절하게 읊는 모습은 현대인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준다.

강의실 밖 문학수업
이병렬 지음 | 유리창 | 1만6천원

교양으로서의 문학을 접해 볼 수 있는 책이다. 중·고교시절 입시를 위한 수험서로서의 문학에 지쳐 있던 사람들이 진정한 문학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시, 소설, 수필 등 문학의 다양한 장르를 모두 담았다. 소설 속 명장면을 제시하고 가요와 일상 언어에 담긴 문학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등 비전공자도 즐겁게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상에 치여 살던 사람들이 문학을 통해 여유를 갖고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왜 실수를 하는가
조지프 핼리넌 지음 | 문학동네 | 1만3천8백원

20여 년간 사람들의 실수담을 모아, 그 원인을 분석했다. 인간이 실수를 하는 이유를 편향성, 자기과신, 멀티태스킹 등 여러 가지 경향으로 바라봤다. 각종 실험 연구 결과 등 사실을 바탕으로 한 실수 예방법도 제시한다. 인간이 가진 구조적인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 보통의 존재임을 인식하라는 메시지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제시한 사회심리학 책이다.

희망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글과 그림 · 최영순

사람은 신념과 함께 젊어지고 과욕과 함께 늙어간다. 사람은 자신감과 함께 젊어지고 공포와 함께 늙어간다.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청춘이다. - 사뮤엘 울만

올해도 4월에 눈이 온다

4월 1~10일 제50회 진해 군항제

창원시청 관광진흥과

'제50회 진해 군항제'는 다채로운 행사와 새로운 볼거리로 세계인이 함께하는 '한류문화축제'로 거듭난다.

진해 군항제가 50주년을 맞아 예년보다 풍성한 모습으로 4월 1일부터 10일간 열린다. 지난해 군항제가 '2012 한국방문의해 특별이벤트 사업'에 선정되면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한류문화축제'로 거듭난다.

'벚꽃한류' 콘텐츠를 창안하고 '진해루 멀티미디어 불꽃쇼', '벚꽃명소 여좌천 불빛축제' 등 국내외 관광객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2012 진해군악의장페스티벌'은 민·관·군이 하나돼 군항의 울림으로 감동의 파노라마를 연출하는 행사이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미8군 등 14개 팀 6백여 명이 참여해 사상 최대 규모로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해공설운동장에서 관광객을 맞이한다.

'벚꽃길 걷기대회', 웨딩포토 이벤트인 '4월의 신부', '벚꽃테마 UCC 콘테스트' 등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선보인다. 그 밖에 '코리아 웰빙푸드 체험전'과 줄타기 등 전통체험행사도 있어 축제기간 중 외국인에게 색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G

정리·박은지 인턴기자

일시 4월 1~10일 **장소** 진해 중원로터리 및 진해구 일원 **문의** ☎055-225-2344

공연명	장소	날짜	문의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대학로 예술마당 2관	4월 8일까지	1577-3363
피노키오	AK 아트홀	4월 8일까지	02-861-3337
문워크	키작은 소나무	4월 15일까지	070-8699-5268
난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월 14~15일	1566-7674
캣츠	계명아트센터	4월 4~8일	053-762-0000
광화문연가	대구 오페라하우스	4월 6~8일	1599-1980
맘마미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4월 6~8일	1544-1555
연극			
878미터의 봄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4월 8일까지	02-758-2150
목란 언니	두산아트센터 Space111	4월 7일까지	02-708-5001
기쁜 우리 젊은 날	유시어터	4월 4일까지	02-3444-0651
잇츠유	부산 SM아트홀	4월 8일까지	1600-1602
아버지	영화의 전당 내 하늘연극장	4월 6~7일	051-780-6000
아빠는 월남스키부대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4월 6~8일	031-783-8000
콘서트			
넬 콘서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4월 14~15일	02-3472-9321
김건모 콘서트	경기도 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4월 7일	1544-9857
케이윌 콘서트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4월 7일	02-541-7110
스윗소로우 콘서트	대구동구문화회관 대공연장	4월 7일	02-747-1252
설운도 빅 콘서트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4월 14일	031-837-1109
클래식/오페라			
로린 마젤 &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4월 7~8일	02-541-3183
우리오페라 우리아리아 – 봄봄 & 아사달과 아사녀	대구 오페라하우스	4월 12일	053-666-6000
무용			
2012 드림앤비전 댄스 페스티벌	포스트 극장	4월 11일까지	02-704-6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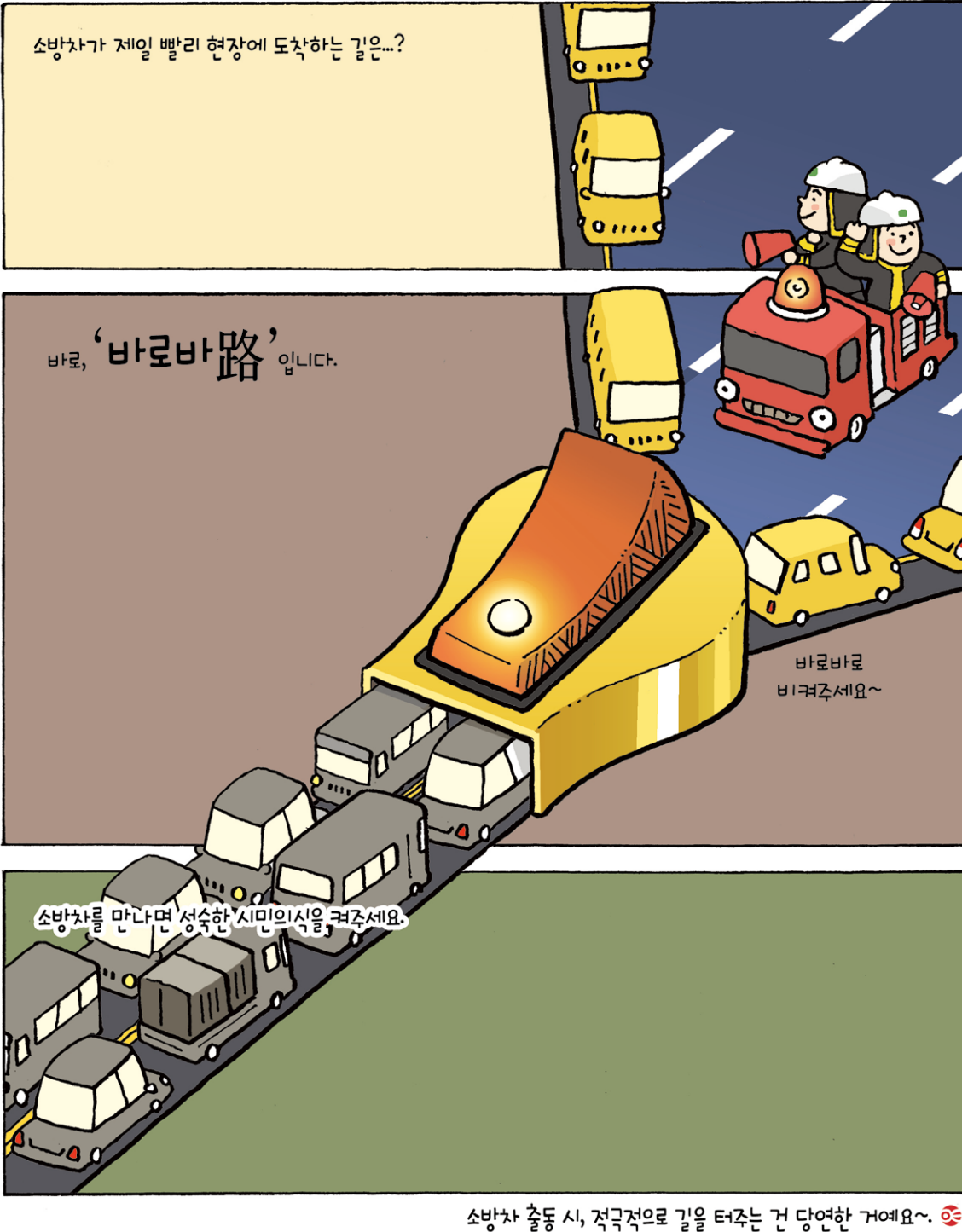
오페라 **라 보엠** 국립오페라단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을 공연한다. 〈라 보엠〉은 프랑스 작가 앙리 뮈르제의 소설 〈보헤미안 삶의 풍경〉을 토대로 한 작품이다. 19세기 파리를 배경으로 가난한 연인 로돌포와 미미의 비극적 사랑을 그렸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공연에 이어 중국베이징국가대극원에서도 공연할 예정이다.

일시 4월 3~6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02-586-5282

3월 넷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3월 11일~3월 17일)

	곡명	가수
1	너도 나처럼	2AM
2	그대 한 사람	김수현
3	FANTASTIC BABY	빅뱅
4	내꺼였는데	2AM
5	BLUE	빅뱅
6	Heaven	에일리
7	BAD BOY	빅뱅
8	LOVE DAY	양요섭&정은지
9	잘 이별하기	2AM
10	아직 사랑한다	씨엔블루

바로바路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안아 주세요? 안아 줍시다!

대형할인점의 푸드 코트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에도 꽤나 혼잡했다.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주문을 하고 있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은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할인 행사를 알리는 방송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데다 사람들의 말소리며 주문 음식이 나왔음을 알리는 차임벨 소리 등 갖가지 소음이 뒤섞여 어지간히 시끄러운 상태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수기가 있는 쪽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나 가족 중 아이가 있는 사람 모두의 주의를 끌었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와 상관없을 법한 사람들마저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다. 아이의 소리가 너무 크고 절박하고 절규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어서였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 아이는 삼십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모와 물건이 잔뜩 담긴 카트, 카트에 올려 앉혀진 다른 아이와 함께 있었다. 대여섯 살쯤 된 아이는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하고 제 어머니의 다리를 붙든 채 외치고 있었다.

"엄마, 안아 주세요! 안아 주세요! 안아 주세요!"

어머니가 외면한 채 들은 척도 하지 않자 아이는 제 아버지의 발치에 누워 뒹굴기 시작했다.

일러스트 · 이철원

"아빠, 안아 주세요! 안아 주세요! 안아 줘요!"

카트 위 작은 의자에 올려진 서너살 된 아이는 무관심하게 손에 든 과자봉지에서 과자를 꺼내 먹고 있었다. 짐작하기에 안아 달라고 외치는 아이가 과자봉지를 든 동생을 괴롭혔고 부모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카트 위 의자에 올려 앉힌 뒤부터 떼를 쓰기 시작한 것 같았다. 아이는 제 동생의 과자를 나눠 달라고도 해 보고 자신도 카트 위에 올라가고 싶다고도 했을 것이고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도 했을 것이다.

부모는 아이를 혼내고 교육하는 방식으로 아이의 언행을 일절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로 한 듯했다. 그러자 아이는 비명에 가까운 울음과 함께 가장 절실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것도 존댓말로.

껴안고 인사를 하면 가슴이 더 따뜻해짐을 느껴

아이의 "안아 주세요!"는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춥거나 더워서도 아니며 잠을 못 자서 그런 것도 아니다.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방치하지 말며 사랑해 달라"는 것이다. 게다가 "안아 줘!"도 아닌 "안아 주세요!"라는 존댓말은 부모가 아이를 평소에 예의바르게 키우기로 노력한 흔적이든지, 아이가 부모에게 좀 더 좋아할 만한 방식의 언어를 선택한 것이 분명했다.

그 존댓말이 어쩐지 내 가슴을 찌르르하게 만들었다. 번갈아 외치는 엄마와 아빠의 호칭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부모는 사람들의 눈길을 견디지 못하고 억지로 아이를 끌고 그 자리를 떠났다. 아이는 땅바닥에 발을 끌며 따라가면서도 안아 달라고 외쳤다.

그 뒤로도 가끔 그 아이의 외침을 떠올리게 될 때가 있다. 추운 날 길거리를 방황하는 헐벗은 사람들, 홍수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를 입고 망연자실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절실하게 외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아주 친한 사이에 혹은 연세 많은 정다운 어른과 악수를 하거나 말로 표현해도 될 것을 껴안고 인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겼다. 의례적인 인사를 할 때보다 가슴이 훨씬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고는 '진작에 이렇게 할 것을, 건강에도 아주 좋겠는데' 하고 생각한다. G

글 · 성석제 (소설가)